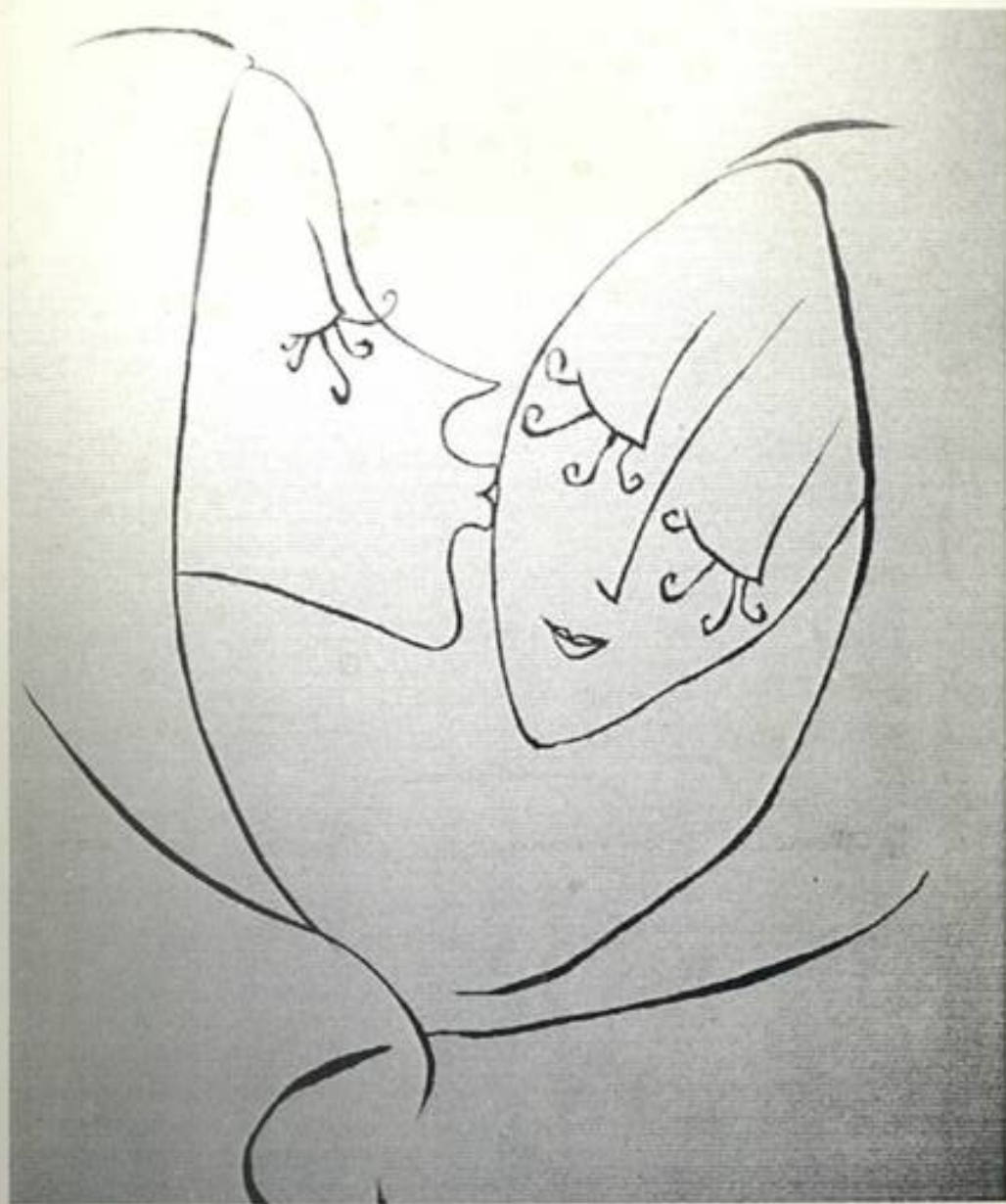




Illustr by 새콤한달

2002 여성연대한판
이제 서로를 알아본 우리, 자매의 손을 잡다

한판 기초와 시간표 p2 + p3

Section #1 성매매

실천하기...그 남겨진 고민들 by 버리 p4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와 대안 by 지영 p6

여성 sexuality 매매와 '노동' 담론과의 관계

- sex-work/sex-worker에 대한 혼란들 by 지영 p9

영상물

쇼킹 트루스/어느 소녀의 포르노보고서

"포르노를 불살라 버려라"(박노자) p19

Section #2 진보/여성

monologue by 和&반짝 p22

진보, 그 안밖에서 여성주의자로 살아남기 위해 by 그림자춤 p25

좌파와 여성주의자들의 마찰: 메이데이 여/聲을 중심으로 by 덩구 p30

Section #3 여성노동

여성노동운동사 발제 by 무후p33

여성노동자인터뷰정리 by 맷돌사람들 p34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 by 덩구 p43

대학 내 여운 단위들의 여성노동 거둬나기 by 성대,고대,관악,연대 p53

5. FENERGY COPYLEFT p59

《이제 서로를 알아본 우리, 자매의 손을 잡다》

여성연대 한판 - 각 대학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운동방향을 짚어보는 이 자리는 9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벌써 4년째 열리고 있을 정도로 그 시간동안 각 대학 내 여성운동은 운동의 주제와 방식, 그리고 그녀들이 가진 고민들 그 모두가 변 와해 왔지. 그리고 2002년 현재 여성주의자로서 자신을 모명하는, 혹은 모명하고 싶은 우리는 각자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지 - 우리 안에서 여성운동의 기반을 닦아주는 언니들의 성과에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앞으로도 여성운동이 이 사회를 뒤덮도록 그 흐름을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등등.

《우린 다양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다들 알겠지만 여성주의자라고 자신을 정체화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대학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치적인 운동모임이 약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여성주의자들끼리 모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 이야. 여성주의자들이 처한 위치가 다양한 만큼 각자의 고민이 다르고, 그래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경계로 선만 그어서는 안되겠지 - 서로의 입장에 필요한 비판을 버리고, 무엇이 '여성주의적'인지를 고민하지 않게 되버리니까.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왜 다를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없는가를 전망하는 자리 - 이번 한판에서 만들어냈으면 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간의 자매애를 도둑개 하는 동시에 각자의 고민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우린 닮았어, 니네 마음대로 여간질하지 말라고》

우린 다양한 만큼 닮았어 - 이 사회의 가부장제에 반대하고, 남성중심성에 반기를 치는 우리는 이 사회의 안중의 여성주의자들. '에미한 페미니스트' '부르주아 페미니즘' '비판한 하는 페미니스트' - 이 모든 모명은 대부분 우리 내부에서 나왔 다게보다는 가부장제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토대들이 여성주의자에게 붙여준, 여성운동에 화신을 각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모든 모명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해. 왜 그런 딱지가 붙을 수 밖에 없는가, 그 딱지를 떼고 서로가 자매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그 고민을 위해서는 변하고 있는 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을 이야기하고, 공유해야겠지. 이번 한판에서 서로 만났으면 해.



여성연대 한판, 이렇게 진행됩니다

8월 19일 첫째날	
오후 1:00	집합
1:00-2:00	한판소개, 참가단위소개, 모듬구성
2:00-6:00	공동체 프로그램/저녁식사
6:00-9:00	성매매 주제별 세미나 및 대학 내 반성매매운동 고민하기
9:00-11:00	영상물보기 및 감상나누기 (쇼킹 트루스/어느소녀의포르노보고서)
11:00-	모듬별 이야기 시간
8월 20일 둘째날	
오전 9:00	일어나기
9:00-10:00	아침식사
10:00-1:00	주제별세미나(레즈비언페미니스트/문학과여성/전쟁과 여성)
1:00-2:00	점심식사
2:00-5:00	교수성폭력투리틀기연대회의 공청회
5:00-6:00	저녁식사
6:00-8:30	'진보'여성
8:30-10:00	모듬 별 토론
10:00-	문화제
8월 21일 셋째날	
오전 9:00	일어나기
9:00-1:00	아침식사
10:00-1:00	여성노동관
1:00-2:00	모듬별 평가 및 전체평가
2:00-	해산

표 1

>>실천하기... 그 남겨진 고민들...

by 비리(관악여성모임연대)

0. 군산화재사건...그리고 그 후...

군산에서의 연이은 화재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감금에 의한 인제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경찰이 100m도 멀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주위 누구나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누구의 신고나 관심 따위도 없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하였다. 언론에서는 감금당하고 착취받는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알다투어 이슈화했고, 여성계¹⁾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이슈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한 움직임들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착취/감금'이란 단어를 깊게 박아놓았고, 착취와 감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하게 됐으며, 죽어야 사는 인권이라 했던가. 너무나도 당연한 인권의 문제가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아닌 것처럼 은폐되어왔음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새로운 사실을 깨우치는 듯 체스처를 휘둘렀다.²⁾ 여하튼 군산화재사건이 성매매의 현실을 알리고 문제의 해결을 강구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 그 자체가 전인하다는 쓸쓸함을 남긴다.

그러나 사건 이후로 정작 성매매 자체에 대한 논의는 김강자 총경의 공창제 논의만 남겨둔 채, 어떠한 입장이 딱히 이야기되지는 않았다.³⁾ 성매매를 기획으로 내보내는 방송에서도 단지 그곳의 실태를 보여준다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했고, 사람들 역시 실제 성매매가 없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⁴⁾ 당연히 없어져야 할 감금/착취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감금/착취만 없으면 된다 쪽으로 바뀐 분위기라고나 할까.

이후 여성계의 움직임 또한 위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의 운방법과 같은 시각에서 벗어난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감금되고 착취받고 있는 여성→성매매방지법 제정'이라는 단순한 공식같이 보이는, 그러나 예뻐한⁵⁾ 문구로서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었다.

1. 성매매방지법⁶⁾ 제정 움직임

법 제정 운동은 (언제나 그러하듯⁷⁾) 그 법이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얼마만한 급진성을 담아낼 수 있을지 따져 보게 하며, 그래서 법 제정이 운동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 성매매는 근절될 듯한 느낌을 주는 여성계의 움직임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에게 불안함을 준다. 우리도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로 이야기를 몰아가면 될까? 그렇게 말이다.

7월26일 발의된 성매매 방지법은 분명 이전의 운방법에 비해 현장의 여성들⁸⁾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자와 구분하여 성매매된 여성⁹⁾을 정의하는 범주에는 실제 대부분의 언니들이 속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운방법과

- 1 이하 현장 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들을 얼버무리¹⁰⁾ 여성계라 칭하겠다.
- 2 얼마 전 있었던 대명동 사건 공판에서는 경찰에 국가배상책임이 선고되는, 당연하지만 최초인, 판결이 나기도 했다.
- 3 관점과 떨어진 현실 해석이 있겠으나 많은 언론은 그렇게 보여지길 바라는 듯 했다.
- 4 이후에는 성매매 현상이 얼마나 많은 매체의 '당연한' 소재가 되고 있는가. -,-
- 5 사실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현장 단체들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복동 사건 이전까지는 그 흐름이 미비해 보였는데, 이는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들은 정작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장례식을 치를 당시 여성계 안에서도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입장은 단일하지 않았음에도 개복동 사건 해결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장례식장 안에는 '성매매방지법'관련 이야기가 종종 떠다니고 있었다.
- 6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및방지법
- 7 이하 '언니들'
- 8 제 2 조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 및 상태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및 장애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자를 말한다.

가. 성적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나.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

는 달리 언니들의 처벌을 막을 수 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선택적 비범죄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에 초점을 둔 정의는 성매매를 물성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성매매가 담지하는 여성 전반에 대한 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으며,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려는 논의에 연장선상에 서게끔 하기도 한다.

일단 현실에서 언니들에게 절실한 부분들을 우선하여, 일정 부분 타협을 하고 법을 제정하는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수긍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부채환, 착취와 감금을 없앤다 정도의 여성계¹¹⁾ 입장은 착취/감금이 라는 말로 언니들을 끊임없이 분리하는, 그리고 결국 성매매를 언니들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 제정 운동만으로 모아질 수 없는 이러한 지점이 대학 내 여성운동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2.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 성매매에 반대한다. 그리고....?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성매매를 반대한다. 사실 여성주의자들에게는 이미 당위적인 이야기이다. 여성주의자들은 대개 한번쯤은 성매매 관련 담론을 접했을 것이고, 대학 안에서는 세미나라는 형식 속에 자주 등장하고, 뭐 지식인이라는 남성들이 내뱉는 말에 흥분을 하기도 하고, 기활을 가기도 하고, 자보를 쓰기도 하고... 등등등.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는 여성주의 안에서 명백하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¹²⁾

성매매 관련 담론들을 접할 때, 그 현실을 알 때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자연스레 그 안의 '여성'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보려 한다. 포주나 성 구매자 보다 성매매된 여성에게 조금이나마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연함이 실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도 모르겠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식의 '여성'이라는 큰 범주에서 이야기될 때, 성매매에 반대하는 "텍스트"로서는 당위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가의 문제이다. 성매매를 "텍스트"로 집하고(집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매매를 하나의 분석 대상처럼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미 성매매라는 현실을 텍스트로 집어넣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¹³⁾

분명 언니들은 연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현장에서의 운동 주체가 되어왔다. 현장 단체에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학내의 움직임은 문제의 상황을 알고 판단하기 위해서보다는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실제 실현적으로 운동을 가져 나가는 데 있어 언니들과의 관계 설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텍스트의 이야기를 안다고 하여 언니들을 안다고, 모두 이해한다고, 여성이기에 언니들과 동일하다고 말해버리려면 그것이 이미 폭력적이고, 다르다고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과거 여성운동이 범해온 과오이다. 그러한 면에서 언니들과 차이¹⁴⁾를 인정하고 그 관계 설정을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탕이 될 때, 막연한 '여성'의 범주에서 그저 반대가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된 상태

라. 외국인 여성 중 이권 등의 압류 또는 불법체류에 대한 협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9 현장 단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현실의 다양한 절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제로 방지법을 사겼다면, 그 외 여성계는 착취와 감금을 없앤다는(인권의 차원에서) 단순한 당위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10 사실 황당해 보일수도 있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당위와 필자 자신의 피리가 커서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학 내 여성주의자라는 포지션에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11 단일 사안으로 반성매매 운동을 가져가자는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다. 성매매라는 문제에서 만큼은 분석하는 것 외에 과연 학내 여성주의가 움직여 왔는가의 자문이다.

12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포지션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듯하다.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와 대안

by 지영(관악여성모임연대)

>>한국 성 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¹³⁾

국내에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1996년부터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의 관광 나이트클럽과 미군 주둔 기지촌의 클럽 등에서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공연예술비자(E-6)를 받아 입국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에 비해 이 절차는 매우 간소한 편이므로 많은 이주 여성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한국에 데려오는 AGENCY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보통 1인당 한달에 약35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agency와 계약을 체결한다. 국제적 성매매는 인신매매조직 이외에 정부, 고객, 포주가 깊게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주 여성은 여권만 쥐고 있으면 통제하기가 매우 쉽고 한 값에 많이 고용할 수 있어 업주에게 상당한 액수의 부당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주 여성에 대한 매매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의 경우, 여성들은 클럽 주인이 정한 숙소에서 한 방에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 머무르게 된다. 여성들은 클럽에서 춤을 추며 손님들이 들어오면 옆에 앉아서 한 잔에 만원 정도인 주스를 팔아야 하며, 여성들의 월급은 개별 여성이 주스를 판 액수로 지불된다. 업주와 여성들은 7:3 정도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데, 보통 업주들은 한 달에 200잔 이상의 주스를 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200잔 이상을 팔지 못하면 여성들은 월급을 한 톨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200잔 이상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클럽 내에서 한달에 200잔 가량의 주스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티켓을 끊어(Burfine) 2차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여기에서 티켓을 끊는다는 것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burfine가격은 시간대마다 다르고 달러로 지불되는데, 이 돈은 여성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며 주스 잔으로 계산된다. 즉 한 번 2차를 나가면 주스 몇 잔을 더 판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클럽의 업주들은 포주와 다름없는 존재이다. 여성들은 영업 시간외에는 외출할 수 없으며, 대인관계 및 이동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여권도 업주들이 가지고 있고, 여성들이 몸이 아프거나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해야 할 경우 업주들은 여성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넘겨버린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낙태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낙태를 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업주에게 벌금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여성들이 업소에서 도망친 경우에도 여성들은 불법 채류자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내에서의 이주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증가 구도

>인종(민족)주의·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라는 이름의 여성 억압이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산업화된 서구 산업 국가들의 관광산업 등에 의해 유지될 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인종차별적 요소와 성차별주의가 함께 결합된다.(Barry, 1996) 여기에서 성산업은 편협한 인종주의로 성매매 시장을 형성하고, 인종/민족/문화적 차이는 성매매 상품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차이'화된 여성의 몸을 성매매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고객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러시아여성에 대한 (일명 백마) 열풍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러시아 여성에 대한 성매매 열풍은 남성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 여성에 대한 왜곡된 환상과 백인 남성들에 대한 동양 남성들

의 열등감이 함께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즉 백인 러시아 여성을 성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통해 남성 고객들은 민족적 자존감을 확보하고,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체하면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남성 고객들의 이주 여성에 대한 성매매는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성매매보다 더욱 큰 환상과 만족감을 주면서 동시에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배타적이고 비열한 민족주의는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비하와 폭력을 정당화시키기도 하는데, 실제로 기지촌의 물림에 있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 업소로 보내버린다는 말은 커다란 협박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전지구적 규모의 성별화된 경제 불균형

산업화 초기에 일어나는 대규모의 이농현상은 노동력의 과잉공급을 낳는다. 그리고 이 경우 여성의 노동력은 임노동의 영역에서 쉽게 주변화된다. 일부 여성들이 임노동의 영역에 유입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낮은 가치가 매겨지고, 낮은 임금을 받는 영역에 자리 잡게 될 뿐이다.

특히 제3세계의 수출 가공 지역¹⁴⁾에서 나타나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착취는 성매매의 산업화를 가속시키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다. 여성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싸기 때문에 제3세계의 수출 가공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즉 여성들을 흡수함으로써 노동 비용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외자 유치를 위해 국가적 차원으로 자국 여성들의 온순한 이미지들을 선전해 왔다.¹⁵⁾ 그런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여성들이 받는 임금은, 그 여성들이 시골에서 경험한 가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자리한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성산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는데¹⁶⁾, 성산업은 제조업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을 끌어 모은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물질 수준이 향상되면, 성매매는 여성들이 산업화의 물질적 잉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럴듯한 영역/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K. Barry는 이것을 성매매가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이라고 지칭한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국가 경제 영역에 있어서, 우선 태운 시장은 외국 남성들(주둔한 외국군인들, 섹스 관광을 즐기러 오는 남성 관광객)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내국인 남성들에 의해 다국적 산업으로 발전해간다.

이러한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은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의 국제적 이주 노동을 낳았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의 노예 매매 등에서도 알 수 있듯 국제적 이주 노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 이주 노동은 전지구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제1세계는 제3세계에 대해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제3세계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산업화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생산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제3세계의 여성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수요의 반향으로써 성매매를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볼게끔 된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진입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것을 어렵고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경제적 기회의 부족과 빈곤, 국가 간의 빈부 격차는 산업화된 성매매를 자본의 논리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착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 매매는 산업화된 성 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및 우편 주문 신부 mail-order bride¹⁷⁾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 매매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가사 노동과 성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성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성매매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촌 총각 강가보내기' 등의 어구로 미화되면서 은밀히 장려되었던 신부 주문 역시 우편 주문 신부의 한 예가 된다.

14 수출 가공 지역(EPZs)은 외국 기업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 내에 만들어진 지역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주최국은 저임금으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종종 원료와 자본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며, 전기료나 주택 임대료, 세금을 삭감받는다. 그리고 수출가공지역은 선진 경제로 발돋움하게 되면 사라진다.

15 No Taxes, No strike: 외국 자본 유인 전략

16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우선 사치품의 소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남성들은 가치분 소득을 사치품 소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과 권력 확인하고 확립하기 위한) 여성 매매에 사용한다.(Barry, 1996)

17 우편주문신부는 서구의 선진자본국가들이 서구1세계의 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의 결혼을 주선함으로써 돈을 받는 산업을 의미한다. 남성들은 제3세계의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파일 적힌 카탈로그를 보면서 여성들을 고르고 대행사에 돈을 지불한다. 흔히 관광산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신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super sexy 관광' 등의 package 여행이 그것이다.

13 <STEP2001: 아시아 성산업 단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pp.17-18.

즉 이러한 전지구적이면서 상벌화된 경제 불균형 속에서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생산물로 간주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제1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젠더화된 폭력의 하나이다. 물론 현실의 여성매매가 반드시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매매가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 대안과 실천을 향하여

국제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제도, 및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민간단체와의 연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나아가 전세계적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새우터에서는 국제 성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이주 여성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성매매된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 국제적인 성매매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할 것
-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것
- 피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 이주 여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와 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국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력할 것
-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 성매매 이주 여성에 대한 특별

- 피해 여성이 범죄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증언을 수락한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 법원은 범죄자들이 이주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강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피해 여성이 조사를 받는 경우, 통역자 및 피해 여성이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동석시킨다.

● 관련 기관의 협력: 여성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보건복지부, 외무부 등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 타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본인의 여권을 타인이 소지하고 이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범죄자나 피해자가 아닌지 확인한다.
- 국제 성매매의 경로 및 범죄 조직, 성매매에 사용되는 수단 및 방법, 성매매에 이용된 여권 형태 등을 조사한다.
-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의 결과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이주 여성에 대한 대안 제공 이전에 내국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 여성에 대한 대안들이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제적 성매매의 유통과 규모, 매커니즘 등이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으므로, 실태조사 및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 여성의 sexuality 매매와 '노동' 담론의 관계 - sex-work/sex-worker에 대한 혼란들

by 지영(판악여성모임연대)

>intro

'헌법상으로는 성매매는 불법이다.'라는 이야기에 놀라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많으리라 생각한다. 애써 지적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성매매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더욱 생경하게 다가올 지도 모른다. 주위를 조금만 살펴봐도 너무나 쉽게 곳곳에 즐비한 성매매 업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단란주점, 비즈니스 클럽, 안마소, 남성 휴게방, 심지어 이발소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 그렇다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성매매가 번창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가의 낮은 법 집행의지도 물론이거니와, 성매매를 묵인하고, 정당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통념들 역시 이에 일조하고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여타 다양한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성매매를 묵인하고 정당화시키는 통념들 중 성매매를 노동화, 직업화해야 한다는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아가서, 성매매와 노동 담론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한다.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 중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성매매의 계약적 외관을 들어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의) 여타 다른 노동 및 계약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혹은 'sexuality를 매매하는 것은 노동의 일종이다.' 등의 주장에 대한 것이다. 성매매의 계약적 외관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주장들은 '성매매는 여타 다른 계약처럼 잘못된 것이 없는 계약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결과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견들은 '성매매는 강한 방지 등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남성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등의 조야한 논리에 비해 세련되었으나, 그렇기에 더욱 극악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를 sex-work로서 바라보는 이들의 의견은 그 이론적 배경이나 맥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묶어 비판하는 데 무리가 있으리라 우려되나, 조야하나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주의적 계약론자들은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 상품화라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sexuality라는 것이 특별히 자본주의의 상품화 경향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몇몇 post-modernist 논자들은 성매매를 성치료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혹은 전체 지배구조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되어 왔던 욕망을 넘어서는 분자적 투쟁으로 즉 새로운 sexuality를 개척하는 開拓場으로서 바라보기도 하며, 어떤 학자들은 민중에 남아있는 성매매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서구 계급주의/근대화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적/엘리트적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읽어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자신들의 이론 내적 방향에서의 '이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현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제도로 굳혀져 버린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의도하던 그렇지 않았든 간에) 결국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이들 가부장들의 빈곤한 상상력 속에서는 '성매매가 근절된 사회'라는 것은 절대로 떠오르지 않았던 탓에 그들의 이론의 기저에 이미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는 것' 혹은 '그 자체로는 별반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의 이론은 이러한 가부장들의 통념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정후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 스스로를 sex-worker라고 부르는 언니들: Zi-teng, Reach-Out을 중심으로 18)

18 이 부분은 <STEP2001: 아시아 성 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발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sex-work/ sex-work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니¹⁹⁾들이 있다는 사실은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들 혹은 성매매를 합법화, 직업화하려는 이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는 '성 노동자sex-worker'라는 단어 안에는, 언니들이 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 및 배경은 모두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러한 언니들의 사례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는 당사자들' 정도로 치부되어, 성매매를 합법화/노동화자는 주장에 근거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sex-worker라고 부르는 언니들과 관련 단체들은 어떤 배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 다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합리와 모순을 가진 '제도' 바깥에서 그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제도'를 인정하되 그 '제도' 안에서 가장 나은 삶을 선택하려는 이들 사이의 간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단순화 이전에, 구체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는지.

<sex-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단체들 중 Zi-teng의 경우 자신들의 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Zi-teng is a sex worker concern group in Hong-Kong and affirms that sex work is a kind of work."

Zi-teng을 깊어보는 것은 <sex-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단체들의 상당수가 제3세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Zi-teng 언니들이 성매매를 일종의 노동으로 간주하게 된 것에는 성 산업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커다란 산업 경제의 한 영역으로 부상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비스 계층의 여성화 현상과 맞물려 있으며, 여성 노동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연결된 사안이기도 하다.²⁰⁾ 노동 시장 자체는 분명 여성에게 제한적이다. 그러나 성 산업은 여성들에게 수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열려 있으며, 사회의 경제 상황과 별다른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성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 대부분이 중년 기혼여성이라는 점은 여성 노동이 마주하는 특수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출산 및 양육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든다. 중년 기혼 여성들은 출산 및 양육의 담당자로서 노동 시장에서 쉽게 배제된다. 성 산업이 아닌 여타의 산업 영역에서 여성들의 취업 통로는 좁고도 제한적이며, 그것도 적정 연령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재취업은 어쩌나 어려운지.

이러한 상황에 여성이 가정에 대한 부양책임을 가지면 '사회적 전통'이 맞물려 많은 여성들은 양육 및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되고, 국가의 복지 체계 역시 미비하기에 여성들은 쉽사리 성 산업에 진입하게 된다. 한편 여타의 노동에서 부딪히는 성적 착취와 성매매에서 부딪히는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제3세계의 현실은 언니들의 문제를 단일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없음을 깨닫게끔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성매매를 일종의 노동으로서 간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성고객 뿐만 아니라 경찰, 판사/검사/변호사, 공무원 등에 의해 이뤄지는 모욕과 폭력이 그것인데, 특히 국가-정부-관료 계층에게 의한 폭력과 모욕은 언니들에게 더욱 커다란 생채기를 남기는 기억으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니들 스스로가 국민의 한 성원으로서는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노동화'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언니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그녀들의 '존재' 인정과 관계되는 문제가 된다. 한편 Zi-teng 언니들의 직업화 요구 배경에는 국가/정부가 결코 언니들의 편이 아니라는, 국가/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내재하고 있다. 이는 제3세계가 식민 경험을 통해 폭력적으로 소위 '근대적 정치'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성 중 하나인 '민중 배제적 관료와 정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sex-work라고 보는 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단체들 간에 각기 나름대로의 역사적/현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많은 논자들이 쉽사리 잊어버리는 지점도 바로 이것이다. 사실 성매매를 sex-work라고 보는 단체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단체들 운용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²¹⁾ sex-work 단체

19 이 글에서는 성매매 생존자 여성들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여성 친반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언니'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언니들을 단지 특정 모집단,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대상으로서 간주하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0 이 부분은 <보론: 노동과 sexuality>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21 Zi-teng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여타의 다른 단체와 매우 흡사하다.(sex worker를 prostituted woman 정도로 바꿔 생각하면 될 정도.)

-To provide conditions an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sex workers self-support organization for mutual support and

에서도 탈 성매매 프로그램과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 단체에서 일하는 성매매 생존자 언니 중에서는 스스로를 성매매 피해자로 정체화한 이들도 있다. 이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단체에서든 성매매의 폐단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 성매매를 sex-work로서 바라보는 학자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sex-work라는 단어 자체의 사용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장소와 시점에서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 것인지를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sex-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남성 학자들²²⁾은 성매매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거나 혹은 신규제주의적neo-regulation 방식으로 그것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각 주장들 중 자유주의적 계약론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볼 때, 성매매는 분명 여타 노동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계약의 외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계약론자들이 성매매의 계약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은 성매매가 여타 다른 노동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성매매가 존속하는 현실이 그다지 나쁠 바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 상품화는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sexuality가 특별히 상품화 경향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개인들처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신체상의 재산 중 하나인 sexuality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처분할 권리는 그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자유롭게 sexuality를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sexuality 나아가 몸이 시장 상품 즉 이윤을 만들어내는 재산일 수 있는지, 즉 개별인의 신체가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윤리적 질문을 포함한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가 나의 신체를 재산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신체를 재산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유주의의 함정-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결국 다양한 통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한다. 즉 신체가 하나의 재산으로써 간주될 때, 개별인들은 '재산 소유자'가 되며 이 다양한 '재산 소유자'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더 많은 관료와 더 많은 법률,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상업화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비판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의'라는 개념이다. 자유주의적 계약론에서 동의, 합의, 협의 등의 단어로 제시되고 있는 '계약' 개념이 성매매에서 과연 성립하는가? 혹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즉 성매매는 자유주의적 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의미의 계약 - 합리적이며 동등하고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이 상호 동의/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를 하는 것 - 인가? 이것은 다소 지긋지긋한... '여성의 자발성' 문제와 연결된다.

네덜란드의 즐비한 성매매 업소 골목 사이에 서서 남성 고객을 유혹하고 있는 네덜 언니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유주의적 계약론자들은 이 언니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을 업소로 이끈 것이므로 이것은 쌍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매매라

empowerment.

-To perform as an advocacy groups fighting for abolishing of criminal ordinances against sex workers.

- to provide legal and health care information, direct services, support and resources for sex workers.

-Out reach/hot-line services

-Empowerment Programs

-Public education

-Research etc.

22 본래 이 글은 '남성 학자'들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것은 성매매를 sex-work로 바라보면서 그 단어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거나 혹은 sex-work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굳어진 성매매를 강화하는 견해를 제시한 이들 중 필자가 접한 이들은 모두 남성 학자들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물론 '필자가 접한'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우선 제목은 '학자들'로 달아둔다."

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맥락을 삭제한 채 그것을 자유주의적 '계약'으로 포장해 버림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 이전에 자리하고 있던 잔인하고도 조금은 냉정한 진실이 삭제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인신매매된 네덜 소년들은 처음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바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이후, 우리는 '가시적 구속 장치 없이' 업소 문 밖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녀들을 보게 된다. 간헐적이었던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시 질문하자. 성매매를 동의/합의/계약 하의 행위로 정의할 때의 '동의'의 속성은 무엇인가? (성적) 종속과 착취의 일부로서의 체험을 한 이들에게 이러한 동의나 계약 개념은 너무나 잔혹한 것이며 수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동의 및 계약 개념에서는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삭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제3세계에서 서구 선진국으로의 장기 매매 현상에 대해, 자유주의적 계약론자들이 '제3세계 사람들이 서구 선진국에 자신들의 장기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기를 '주도' 하는 폭력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sex-worker라는 개념은 서구 제국주의적 근대화에 반대하면서 아시아적 가치와 특수성을 재발견하고자 노력하는 탈식민 정치 이론가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켈왕신은 1997'8년 타이페이에서 있던 공인 매춘부 투쟁(본문 그대로 인용)을 자신의 정치 이론을 전개하는 예로서 바라보면서 그녀들의 투쟁을 '국가/근대성의 다양한 통제와 폭력에 대한 저항 지형'으로 설명한다.

켈왕신은 '民間'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민간이란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요즘에도 음력을 사용하고 사원, 시장, 축제 등 비공식적 경제를 꾸려가는 사회 층위 정도를 의미한다. 이 계층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근대화에 의해 폭력적으로 과거와 단절해야 했던 공식적인 사회와는 달리, 과거와의 역사적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며 따라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국가의 폭력과 시민사회에 의해 침식당하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이다. 여기에서 켈왕신은 자신의 '민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예로 1997-8년의 타이페이 공인 매춘부 투쟁을 꼽는다.

당시 타이페이 시장은 民間 내에서 공인되고 있던 타이페이의 성매매 지역을 구식, 악습 등의 용어로 비판하면서 공권력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했고, 여기에 작정 근대적, 진보적 국가 페미니즘 세력이 결합하여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켈왕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근대성의 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에 대해 공인 매춘부들은 정치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주제 집단으로서 民間에게 친근한 언어와 슬로건을 사용함으로써 맞섰고, 동시에 시민 사회집단과의 연계, 국가와의 교섭을 계속했다. 결국 이들은 2년간의 투쟁을 통해 종사에 이겨 2년 더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켈왕신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그들이 민중 민주주의 역사를 쓰는 것은 이 순간이다. 하층민은 말할 수 있는가? 지식인들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스피박 언니에 대한 공적이군.)" 그들은 시장의 신년 기자 회견을 중단시키며, tv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근대화,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신성한 사명의 형식으로 포장된 물리적/상징적 폭력을 휘두르며 식민지의 토착 문화를 철저히 억압했던 제국주의적 근대화의 과정, 결과적으로 '다른 방식의 역사'가 인정되지 않았던 식민 경험이 식민지에 아로새긴 고통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고통을 직시하고, 탈식민화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노력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내셔널리즘을 넘어서야 한다'고 다소 자신 있게 결론 내린 우에노 치즈코의 주장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주춤하게 되는 것, 켈왕신의 民間 개념을 서구적 근대 정치에 대한 전복적 공간으로서 바라보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설명하는 '타이페이 공인 매춘부 투쟁'에 대해서는 주춤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서로가 서 있는 다양한 position과 여성이라는 고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때 생겨나는 다양한 머뭇거림들 중 단편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복잡다단한 position을 인정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들에게 '성매매' 자체에 대한 반성 없는 이론은 위험하다는 점이 아닐까.

또한 <육망의 정치>를 주창하는 post-modernist은 성매매를 성 치료사, 새로운 성 활동의 開拓場 등으로 조망하고 있다. 그들의 용어를 빌어 이야기하자면, 성매매는 끊임없이 제도를 자신의 틀(장치) 속에 포섭함으로써 다수 대중, 개별인들의 무한한 욕망을 통제하는 권력의 시선에 대항하여 욕망의 탈주선을 실험하는 장 중 하나인 것이다. 좀더 나아가 이들은 성매매를 노동화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수자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투쟁이야말로 초코드화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분자화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자적 움직임은 색다른 주제를 내세우며 색다른 공간을 창출하려고 하며, 이 색다른 주제들은 소수자 운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 현존 지배 권력에 대항한 자기 권력을

내세운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

자유주의적 계약론 외에 들었던 두 가지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평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성매매>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매매의 현실적 조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이론을 진행한 탓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론들이 현실 사회의 성문화나 여성들이 놓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놓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성매매를 묵인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들-특히 자유주의적 계약론자들-이 제기하는 이론들의 근저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어느 정도 노동 환경을 보장받는다- 즉 폭력이나 강제, 감금에서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노동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면 - 여성들 개인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즉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은 해당 여성들의 '자기 결정/자기 선택'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성매매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규제 조항이다.

그러나 '개인'은 '제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오늘날 성매매는 분명 하나의 '제도'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소한 일인 양 넘기고 있지만, 그들이 '간파한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를 노동이라 이름 붙이기 전에 그것이 언니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그리고 다양한 통념들에 대해

앞서 나열한 이론들 외에도 성매매를 sex-work로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는 크게 '성매매 합법화 혹은 공창제 주장'으로서의 '단계적 전략'으로서의 합법화/직업화 혹은 '합법화/직업화' 견해와 '전지구적 자본주의 확산과 이로 인한 sexuality의 노동자화와 경향'에 대한 견해 정도로 짚어낼 수 있겠는데, 각 주장들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

우선 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성매매 합법화 혹은 공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선 그것이 단계적 전략으로서 제기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합법화/직업화 주장으로 묶어내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언니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그것을 '노동'으로 인정해서라도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단계적 전략으로서의 직업화/노동화론>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 사회 현실 상 성매매가 '근절'될 수는 없기에 차선책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성매매를 국가 관리 하에 둬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공창제 주장이 있다. 이것은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버린 국가에 대한 로비 및 관계자에 대한 항응 제공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 생산 중인 관계 범죄 조직의 엄청난 규모 및 국제 범죄조직과의 연계성 등으로 인해 오늘날 성매매는 사실상 공권력 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르렀다는 냉정한 현실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성매매의 문제를 '노동권'의 문제로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노동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성매매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노동화하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이익인 것인지 간파하고 있다는 점,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과연 합법화하고 양성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짚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우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계적 전략으로서의 성매매를 합법화/직업화하자는 구상은 한번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더욱 근절시키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한 예로, 현재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자. 독일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화되었을 때, 분명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약간의 사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및 알선업자를 근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이것은 제3세계 여성들을 유럽의 성매매 합법화 국가로 인신매매되게끔

23 윤수종의 경우 <진보평론 창간호>에서 성노동자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언론매체(현존 지배 권력의 시선)은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만 방출한다. 성 노동자의 욕망? 매춘부들에게 돈을 대 주고 매춘부와 고객을 사이에 흐르는 욕망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손쉽게 하였다. 제3세계에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우선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노동자'로서 합법적으로 자리하다가 곧 유럽 각지의 성산업 업자에게 팔려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 대규모의 국제적 인신매매 조직들이 몰려들게 되었으며, 이들 국제 범죄 조직은 개별 국가의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치 커다란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산업이 번창하고 국가에 의해 합법화된 곳에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80-90%가 포주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합법화는 성매매를 강화시켰다.

생각을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보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특정 지역을 국가 규제 지역으로 두려 한다면, 우선 기존 성매매 지역 중 널리 알려진 지역들 몇 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누구나 성매매를 합법화하더라도 국가가 허용한 지역 외의 성매매 지역들이 모두 한번에 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공창화되지 못한 이들 지역은 어떻게 될까? 이들 지역들은 더욱더 음성화되어 오히려 더욱 심각한 인권 유린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합법의 틈새를 노려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성매매가 존재하게 될 것이며, 공식적인 성매매 인정은 오히려 성매매 지역을 확대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관리 하에 있지 않았던 지역을 국가 관리 하에 두려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한 예로 성매매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에 공공연하게 '합법화', '공창제'라는 이름의 유행들이 떠돌았을 때, 미아리나 청량리 등 적선red-line 구역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게다가 합법화 관련 논의 중 특히 공창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필요성의 강조로 인해 한 여성의 인권을 그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일부 지역을 공창화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일정 지역에 묶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창 지역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지려면 필연적으로 언니들을 그 지역 외부로 이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 성매매는 사실상 공권력 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르렀으며,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볼까. 앞서 이러한 견해로부터 제기되는 '차선택'인 일부지역에서의 합법적 성매매 허용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선택이란 없다는 것인데, 물론 단순히 정책상의 변화로 성매매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성매매란 여성에 대한 다른 모든 폭력들이 근절되어야만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투쟁으로서 성매매 근절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차단하고, 남성 고객과 성산업 자본가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성적 착취는 근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에 있다. 더불어 전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시키는 노력과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중적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²⁴⁾

성매매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은 개별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규제주의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불신을 안 하려 해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서구적 근대화의 과정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남성적 권력을 강화해 왔고, 이런 점 때문에 국가와 정부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전히 의심스러운 존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투쟁과 협상의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협상을 배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국가의 거부장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의 목표를 국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국민 국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적 연대 운동 역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매매를 sex-work라고 칭하는 다른 움직임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 확산과 성별화된 계급(gendered class)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sexuality가 '노동 자원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틀에서 현상을 연구했기에 야기된 다소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여기에서도 역시 'sex-work'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성매매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적 이주 노동과 서비스 계층의 여성화, 우편주문신부 등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큰 이익을 내는 생산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⁵⁾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의 여성주의 투쟁이 전지구적 연대를 요구한다는 점을 일깨우기는 하나, 반자본 투쟁으로<만> 이야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 'sexuality의 매매'를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라면 어느 정도 인간 소외와 자아 손상, 굴욕감을 동반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기에 성매매가 여타의 다른 노동보다 더 억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분명 성매매는 (여성이 행하는) 여타의 노동과 비슷한 점이 많다.²⁶⁾ 이에 대해 Pateman 언니는 '계약'의 성격을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성매매가 자본주의적 시장에서의 '노동'과는 다름을 지적한다. Pateman에 따르면, 성매매는 <남성 고객과의 계약이지 고용주와의 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핵심은 여성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사용이다.>는 점에서 여타의 자본주의적 '계약'과 무엇이 구분된다고 한다. 보통 자본가는 노동자의 특정한 노동형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과 그에 따른 이윤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자본가는 종종 기계로 노동자를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남성 고객은 여성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요구하며, 성기뿐만이 아닌 반응까지 요구한다. 많은 경우 성매매에서 남성 고객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된 동의와 감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노동'과 성매매를 구분하는 Pateman 언니의 이러한 근거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직접적인 노동자원으로 간주되는 요즘에는 효력지는 경향이 보인다. 전자 장치와 기계 등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됨으로써 판매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는 소멸하리라는 예상²⁷⁾과는 달리, 서비스 노동이 전체 산업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서비스 노동의 대부분이 여성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서비스 노동이 여성의 sexuality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매매와 여성노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꽤나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으로 간주하기 전에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성sexuality을 판다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저런 다양한 의견을 틈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성매매 반대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대인이 존재한다면 어떤 여성들도 성매매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간명한 명제가 아닐는지.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sexuality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팔 권리'가 아니라 '여성의 성sexuality이 매매되지 않을,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보론: 여성 노동과 sexuality²⁸⁾

많은 담론에서 마찬가지로 있지만, 기존 노동 담론에서도 여성은 하나의 섬으로 남겨져 있었다. 노동 담론의 gender-blind에 대한 수없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존 노동 담론에 '여성'이라는 담론이 하나의 종속변수로나마 첨가될 수 있었다. 물론 여성이라는 개념이 '종속변수'로서 노동 담론에 붙여진 것만으로 여성 노동에 대해 제대로 말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성'이라는 관점으로 '여성의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간 성과를 살펴보고, 좀 더 확장된 분석틀을 제시해보려 한다.

기간 이루어져 왔던 '노동의 재개념화'는 공/사 분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적영역에 남겨져 있던 여성의 노동을 드러내는 데 중심을 두고 있었다. 노동의 재개념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감정노동 및 재생산 노동에 대한 제평가를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행하는 노동의 성격 역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왔다. 이는 여성 노동 문제가 공적 영역/사적 영역을 횡단하는 문제임을, 그리고 공/사의 분리라는 개념 역시 명확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성의 sexuality 문

24 여기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불법화한 스웨덴의 <여성 폭력 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정책을 강조, 확장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도의 예로 볼 수 있다.

25 이 부분은 보론 및 해안님의 발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6 이 점 역시 <보론: 노동과 섹슈얼리티>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27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사.

28 <2002 대학 내 여성노동운동 태토론회 자료집>에서 제가 썼던 글을 조금 수정한 것입니다.

제는 노동담론과 별개의 영역에서 발언되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기간 여성의 sexuality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성론적 담론과의 결합 외에서는 다른 연계지점을 찾지 못한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sexuality가 노동과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것은 노동과 sexuality가 별개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 문제의 인식과정 자체가 남성 중심적/여성 배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여성 억압에 대해 발언하는 지점들은 좀 더 폭넓고 다양해져야만 한다. 단일한 방식으로 여성 억압을 이슈화하는 것은 그 운동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억압의 총체적 측면들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성억압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의 운동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에는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정체성들이 강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성/gender라는 틀로 발언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과 sexuality의 연관 관계를 지적하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재개념화를 기반으로 어떠한 실천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이것은 앞서 다소 뭉뚱그려 서술한 여성 노동에서의 '문제' 중 '관점'의 문제에 대한 제언이며, 이를 기반한 실천은 새롭게 만들어 갈 '정세'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성 노동 :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의 전반화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받던 여성에게 공적 영역이 허락되기 시작한 이래로,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 시장에 진입한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 보조적, 주변적, 저임금의 소위 '여성 직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여성 직종'이란 미숙련, 단순 노동 중심의 직종을 의미하는데, 산업 전반에서 서비스업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는 '여성 직종'이란 여성의 색수열리트를 직접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점차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이 전반화되는 과정으로 여성노동이 재편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여성다움'이란 사회적 성과 sexuality를 모두 지칭하며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은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성별 정체성 및 gender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에게 부과되는 감정 노동 및 가사노동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의 sexuality를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에 부과되는 측면이다.

흔히 '여성에게 적절한 노동'으로 간주되는 노동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역할 및 성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서, 교사, 가정부, 간호사, 요리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한때 그 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했던 노동을 직업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³⁰⁾ 또한 많은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직종에 취업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살핌과 배려 등을 기대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공/사 영역이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님을, 여성의 노동이 이미 성별 정체성 및 젠더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부과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가사 노동과 감정 노동은 공적 영역에서도 역시 '여성의 일'로서, 그리고 여성 노동 전반에 개입함으로써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9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인 서비스업 부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여성들은 그 안에서 색수열리트에 기반한 서비스 노동을 기대 받는다. 나레이터 모델이나 행사 도우미의 경우, 그녀들은 자신의 색수열리트를 직접적인 노동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름다운 몸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몸을 전시하는 노동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상품화해야 하고,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몸/성'으로만 평가받고 물상화되면서 다시 스스로를 상품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남성에 비해 노동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여성에게 있어 외모란 그 불리한 사회 조건을 만회하거나 능가하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있어 '외모'를 다른 능력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성매매라는 형태로 국한되던 여성의 색수열리티 교환이 여성 노동의 전반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K.Barry(1995)는 '성매매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접근한다. Barry에게 있어 성매매화된sexualized 사회란 '여성이 계급, 인종, 종교 등을 막론하고 성적 대상화의 일부가 되며, 성이 여성의 신체와 동일시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Barry의 지적대로 현 사회는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에게 있어 불평등한 구조로 성매매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며, 그 영향은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성매매화된 사회에서, 성매매와 여성에 대한 응시, 성적 암시가 노동 가치의 한 부분이 되는 여성 노동 사이의 구분은 희미해진다. 사무직 여성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녀의 노동은 남성과 같은 내용의 업무뿐만 아니라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잡무,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회식이 있으면 반드시 동참할 것을 강요당하고, 남성에게 술을 따라야 하며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분위기 상' 참석을 요구받는다. 여성에게 있어 술과식의 시중들기는 곧 업무의 연장인 것이며, 여기에서 기대되는 것은 성적인 서비스이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여성의 일'로서 섞여 드러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여성이 수행하는 '본무'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전반화는 곧 정상화로 이어진다. 정상화(normalization)는 어떤 것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기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결국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조건 사이의 어느 지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있어 제한된 정보 및 선택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느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은 그 사회의 체제 및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적 노동'은 고정되었다기보다는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 배열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권력 관계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legitimation)한다.³⁰⁾

>여성 노동 전반에 개입하는 여성의 sexuality

앞서 서술한대로, 사회의 성매매 경향이 노동 영역으로 확장된 현상은 여성 사원의 채용 기준에 외모 및 신체 조건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 여성 노동 전반에서 여성의 색수열리티가 노동 자원으로 교환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정상화된 것으로 간주될 때, 많은 여성들은 그나마 노동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성형 수술을 받는 것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설명 이러한 관문을 거쳐 어떤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sexuality는 직접적인 배제/차별의 기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sexuality가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sexuality는 직접적인 배제와 폭력의 기제로서 사용될과 동시에 노동 자원으로 이용된다. 여성에게 있어 sexuality는 그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 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노동자원 전반에 개입한다. 또한 사회의 성매매가 점차 정당화되면서 여성에게 성적노동은 일상적인 것으로서 인식된다. 이는 자신의 색수열리티를 적극적인 노동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직종이 아닌 여타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여성'이라는 성으로 균질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무직 노동자, 선생님, 의사, 변호사 등의 여성들에게도 역시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그녀는 우선 여성으로서 간주된다. 그렇기에 그녀는 몸을 전시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보살핌 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회식 등에서 적극적으로 '접대'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의 sexuality가 노동 전반에 스며드는 이러한 현상은 노동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며, 다시 그것은 개별 여성들의 '노동자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우선 앞서 지적했듯이 여성의 노동 시장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여성에게 있어 노동시장이 이미 성매매sexualized, 젠더화gendered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일을 부차적이고, 낮은 가치를 가지며, 잠시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하는 사회 통념과 연결되는 것이며 한편으로 이 통념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화됨에 따라, 개별 여성들 역시 이러한 통념 안에서

30 "요즘 사회에서는 외모도 능력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남성들에게도 외모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 추세겠지? 그런데 자신의 예쁜 외모만 이용하려 하는 예들을 보면 좀 짜증난다. 추해보이기도 하고, 예쁜 게 사실 부럽기도 하지만, 꿈만 예뻐서 자러지 하고 생각해보인다."(경희대 98, 국제통상학과)

"외모가 취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싫다. 나는 꾸미지 않고 지내는 것이 편한데 주위에서 강요하면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 나이가 들면 화장을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싫다. 그러나 변하는 몸기들을 보면 자신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서울대 00, 자연과학부)

"남성 사원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으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성차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서비스업? 하긴 점차 서비스업에 여성들의 성적 측면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똑똑 뽐낼 땀을 흘린 나레이터 모델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겠지하고도 생각한다. 일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서울대 98, 철학과) 이러한 현상은 간접 차별 및 여성의 색수열리티가 노동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경향 등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정상화'되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29 V. Beechy는 "노동시장은 성적으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성차별 관계가 생산 조직 그 자체에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

'노동'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선택'하게 된다.³¹⁾ 즉, 이는 여성의 노동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여성의 sexuality³²⁾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를 정의해보자면 생산, 노동, 시장의 지구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이윤의 최대화를 추구하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협상력 증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더불어 생산의 세계화는 노동의 여성화 및 파트타임 노동, 비정규직 노동에서의 여성 비율 증대를 가져왔다. 우선 노동의 여성화는 수출 주도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졌다. 여성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싸기 때문에 제3세계의 수출 가공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즉 여성들을 흡수함으로써 노동 비용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한편으로 외자 유치를 위해 국가적 차원으로 자국 여성들의 온순한 이미지를 선전해 왔다.³³⁾

최근 눈에 띄는 세계화의 흐름은 소비 부문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주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국제적 이주 노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 이주 노동은 젠더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전자 장치와 기계 등의 등장으로 판매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는 소멸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제 이주 노동에서는 특정 서비스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들은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가사노동 담당자로서 혹은 성 산업 종사자로서 국경을 건넌다. 즉 이러한 현상은 크게 보아 가사 노동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라는 두 가지 측면이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필리핀의 여성들이 홍콩 중/상류층의 하인이나 가정부로 국경을 건너는 것,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중상류층의 가정부, 베이비 시터, 하인으로 국경을 건너고 있고,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들은 일본 및 한국에 '연예인'으로서 국경을 건너지만 곧 성 산업의 영역으로 흡수된다.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매매는 성매매 업소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 및 우편 주문 신부 mail-order bride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개인적 선택'이라는 이름 하에 능력주의에 입각한 자유와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세계화와의 과정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폭력적인 세계인지를 은폐하고 있다. 이 체계에서 장기와 혈액, 출산 능력, 정보, 종교 등이 사고 팔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고, 이 중 여성의 sexuality는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생산물로 이해되는 것이다.

31 인터뷰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프리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이는 '자유로움', '고소득' 등의 단어로 표상되는 career woman의 이미지 탓도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소 수세적인 전략으로서 파악할 수 있자 않을까. 많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성과 함께 하는 관료 집단에서 자신들의 능력이 평가되기 쉽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인지한다.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활동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곧 그녀의 능력이 모든 공간에서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는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 프리랜서는 이미 성별화되고 젠더화된 노동시장 영역에서 능력만큼의 가치라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성별화되고 젠더화된 노동시장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상황에서 한 개인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

32 이 부분은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와 대안> 발제와 중첩되는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33 No Taxes, No strike: 외국 자본 유인 전략

영상물: 어느 소녀의 포르노 보고서/ shocking truth

감독:Alexa Wolf

Sweden/1999제작/58min/

이 영화는 리사라는 젊은 여성의 눈을 통해 전통적으로 판대한 입장을 보여왔던 스웨덴 섹스 산업과 TV에서 방영되는 포르노 영화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포르노를 찍은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험과 어릴 적 성적 학대를 당한 남성의 고백이 교차하는 이 영상물은 포르노의 존재 자체가 왜 여성들에게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준다. 리사는 '행복한 매춘부'라는 빛나간 사회통념을 되짚으면서 여성이 당하는 현실을 기만하고 중립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섹스산업에 대해 고통스런 비판을 가한다.

한편 이 작품으로 인해 스웨덴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이 일어났다고 한다. 스웨덴의 마리아 울브스코프 문화부 장관은 이 다큐멘타리를 시청한 후 곧 의회에서 상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섹슈얼리티의 자유, 우리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 등 여러 가지 단상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다음은 한겨레 21 제388호에서 퍼온 글입니다.

[박노자의 북유럽탐험] "포르노를 불살리버러"

스칸디나비아주민들에게 일종의 '개안'을 준 윌프 감독의 다큐 <충격적 진실>

선(禪)불교에 '돈오' (頓悟)라는 개념이 있다.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참선을 실천하는 것은 득도(得道)의 준비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깨침, '돈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돈오'의 경험을 오도송(悟道頌·도를 깨치는 노래) 등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깨침'을 가진 사람은 행동거지가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여태까지 해왔던 삶에 대한 다른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깨침'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 모양의 하루살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된다. 예술이나 문학의 걸작들도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깨침'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버젓이 유통되는 '이미지 폭력'

최근에 많은 스칸디나비아 주민들이 한 다큐멘타리를 통해서 일종의 '깨침', 곧 개안(開眼)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Q채널을 통해서 알려지고 제4회 서울 다큐멘터리영상제에서 상영했던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어느 소녀의 포르노 보고서>(원제목: <충격적 진실>(Shocking Truth), 스웨덴, 1999년)다. 이 작품은 가혹한 포르노에 대한 스웨덴의 윌프(Alexa Wolf) 감독의 고발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포르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필자나 포르노가 풍부한 성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고 그 생산과 소비를 기정사실로 보는 많은 노르웨이인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끔찍한 폭력과 인간의 비(非)인간성에 새삼 눈을 뜨게 됐다. 인권보호의 모범국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웃나라 스웨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이 하나의 '이미지 상품'으로 버젓이 생산되고 널리 소비된다는 것이, '스칸디나비아 생활양식의 도덕적 건전성'을 믿는 우리로서는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비길 데 없는 충격이었다.

...몇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천천히, 폭력적으로 윤간한다. 남성들의 육욕과 희열에 넘치는 얼굴, 고통지르는 곁에 질린 여성의 얼굴, 여성의 음부를 도구 등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부각되어 보여진다. 그 남성들은 섹스 자체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무력함과 그들의 "권력"을 즐긴다. 그러나 울어야 할 여주인공이 곁에 가서 큰 만족의 미소를 짓는다... 결국 폭력의 즐거움과 "여성도 즐기니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짓말을 남성들에게 주입시키는, '강간의 교제'쯤으로 보이는 이 포르노영화는, 윌프 감독이 암시장에서 어렵게 산 것이 아니라 인권국가 스웨덴의 합법적인 한 대중 유

선텔레비전 채널에서 찾아낸 하드 코어(강도 높은) 포르노 프로일 뿐이다.

수백만명의 시청자들이 저녁마다 보는 이 채널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왜 윌프 감독 이전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스칸디나비아가 살해를 방불케 하는 심투한 이미지 폭력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관대할까?

이미지 폭력과 '실제' 폭력은 서로 무관하고 돈을 받고 카메라 앞에서 강간을 연출하는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통념이, 바로 이 관대함의 근거이다. 그러나 윌프 작품의 진정한 '충격'은, 텔레비전 포르노의 야만적인 폭력성을 보여준 데 있지 않았다.

연출한 것과 폭행은 무관하다?

연출 과정에서 '직업적인' 윤간과 폭력을 당하는 포르노 여성 배우들과 많은 인터뷰를 가졌던 윌프가, 그 포르노 출연자들의 '자유 결정권 행사'의 신화를 깨뜨린 것은, 윌프 영화의 진정한 공로이다. 그들이 윌프에게 이야기했던 그들의 과거와 포르노 배우가 된 사유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대부분의 포르노 여성 배우들은, 어렸을 때 부모나 친척, 친구들로부터 '진짜' 강간을 당한 것이 결국 포르노 배우가 된 진정한 계기라고 주장했다. 가장 믿었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이를 폭로하여 사법처리를 할 용기가 없었던 그들은 결국 극심한 자괴증에 빠지고 자신을 '버린 몸'으로, 그리고 남성의 성적인 폭력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신·신경질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은 결과적으로 포르노 산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유 결정권'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남성들의 성폭력이 그들에게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돈을 받고 연출하는 것은 여성에게도 직업적인 만족감과 재정적인 독립을 가져다준다"는 그동안의 스칸디나비아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린 것도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윌프가 인터뷰한, 20여년 동안 3천~4천번씩 강간을 연출한 '중견' 포르노 여성 배우들에게, 그 일은 '만족'이 아닌 피로와 체념, 자기멸시를 가져다주었고, 자신이 '동물 노릇'을 했으며, 자신이 출연한 영화들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몇번씩 포르노 산업으로부터의 탈출을 고심해왔지만, 교육이나 직장 경험이 모자라 불가능에 가까울 뿐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남성사회가 요구한 '직업적 강간거리'의 길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통념과는 정반대로 몇천회에 걸쳐 '합법 강간'을 당하는 것이 그들을 결코 부자나 중산층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값이 초기 단계에는 중산층 소득과 맞먹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외모 쇠퇴'로 분류돼 하류층의 수준으로 떨어진 다. 일류 포르노스타의 대열에 끼는 것은 극소수이고, 평생 가난과 불안정, 각종 정신·성적질환과 무엇보다도 극심한 자괴심과 한번도 가족의 따뜻함을 누려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 대부분의 운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르노 산업 자본가들의 소득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급 노동자인 포르노 여성 배우들의 불행은 자본가들의 치부와 남성 소비자들의 '논요기', 성적 욕망의 생산과 부추기의 이면이다.

"연출한 것과 실제 폭행은 무관하다"고? 사회통념 중에 이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윌프의 영화는, 포르노를 본 뒤 스크린에서 본 대로 똑같이 한 여성을 윤간한 스웨덴의 10대들에 대한 장면도 포함한다. 사실 포르노를 접하는 남성들의 대다수가 결국, 폭력적이며 남성을 위주로 한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70년대 말의 연구 결과이다.

물론 경찰제도가 잘 정비돼 있고, 성폭력은 물론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범죄로 돼 있는 스웨덴에서는, 포르노 소비자 들이 영화 속의 장면들을 실생활에서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가 국가기반 산업쯤으로 돼 있는 타이까지 안 가도, 매춘이 합법화된 네덜란드에 가서 포르노영화식 욕망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네덜란드 매춘녀의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팔려온 아시아나 동구 출신의 현대판 노예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할까? '인권의 천국'인 스웨덴의 포르노영화는, 제3세계 여성에 대한 가장 심한 인권유린인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관심 속에

서 제3세계에 대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윌프의 명작은, 노르웨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스웨덴·노르웨이 위정자들에게도 하드 코어 포르노의 해악·반(反)인권성에 대한 돈오(頓悟)를 가져다주었다. 그 영화가 스웨덴·노르웨이 국회의사당에서 상영된 뒤, 두 나라의 포르노 생산·소비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메커니즘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포르노 여성 출연자의 전업(轉業)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그러나 문제는, 포르노가 합법화돼 있는 덴마크·스웨덴은 물론, 성기 이미지의 생산·소비가 법으로 엄격히 통제돼 있는 노르웨이에서마저도 포르노의 소비는 이미 남성의 성장 과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제3세계에 대한 '범죄'를 부추긴다

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십대들은 '강간을 원하는' (?) 여성에 대한 '즐거운 폭력'의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이성 교제의 묘리(妙理)를 배운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개인적이며 중요한 생활 영역, 성생활에서 평등과 사랑이 아닌 폭력을 먼저 배운 그들이 동양여성이나 제3세계 여성을 대할 때 과연 민주적일까? 윌프에 의한 폭로와 분석의 영향으로 하드 코어 포르노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졌다는 것이, 인터넷과 열려 있는 국경의 시대에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 여성에 대한 가혹한 폭력과 차별이 담겨져 있는 상업적 이미지가 자본주의적 억압의 일면을 대표한다는 의식이 대중적으로 확대되어야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오락으로 삼는 풍토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

monologue.

written by 和

performed by 반짝

opening.

나는 그들을 동지라 불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동지 동지여
우리는 무엇이든 함께 했습니다. 동지니까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 아니요. 그렇게 '만어진 것' 뿐이었지요. 그랬던 것뿐이었어요.
난 나를 의심했어요.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건 편협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밖에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쳤어요.

그런데 왜 편협하면 안 되는지 점점 더 알 수 없었죠.
그들의 편협함으로 인해 내가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정보와 사회 변혁을 꿈꾸는 그들 역시
배속까지 스미기 불가능성을 알아내지 못하고,
또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를 내 여자친구들을
운동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소수자였습니다.
사회적 운동의 마이너리티.
이제는 어쩌면 외따로 외로운 이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네요.

main 1.

그들이 말했어요. '여성주의'를
처음에 몰랐고, 외아스라웠고. 그렇지만 사실 기쁨기도 했어요.

'보편적 적대로부터 성적 적대성을 고민해야 한다.'
'학생 운동의 여성주의적 재검사가 필요하다.'
'이상의 정치를 여성주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속이려는 그들로 덮개를 쓴 나 차마 몰랐던 겁니다.
끼끄 동여매어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하는
안을 들어보는
그런 족쇄가 되어 심장을 묶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마음 한 켠에서 꺼냈던 것을
나는 무수한 계기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지요.
거기 막히게 먹진 말들이죠. 도말한 내외 없이
말 그 자체로만인걸요. 하지만

그들은 페스트주의의 전환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성주의'를 사용해요. 이용해요. 도구화해요.
이론은 완벽하죠.
이론만 아름다워요. 그들의 입상에 '여성주의'는 없어요.
개념만 그득히 그더기를 씹습니다.

결에서 살아 숨쉬고 같이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문제에 대해 말할 때
그들에게 '여성주의'는 허공에서 부르는 지향점으로만 자리한 것 같았어요.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게 좀 차분히 말해보라고.
그렇게 나를 몰아세웠어요.
그들은 들어버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어법으로 말하기를 강제당했어요.

'여성주의'는 그렇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고집해내어 이야기하는 여성 동지의 말을
단칼에 잘라내버리는 것이 '여성주의' 인가요?
말 그대로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법만을 고집하는게
자식으로써만 페미니즘을 알고 그것을 무기로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는게
그게 '여성주의' 인가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입만 들어주세요.

난 무시했어요.
'영제'를 부르는 집회에서의 투쟁서보다
그 반박적인 남성중심주의의 답을 건지지 못해
대안을 베풀는 게 어땠는지고 했던 나의 문제제기에 침묵하는 당사자들이
더 무시했어요.

나를 보지 않고 단점을 피웠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세요.
듣고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게 일상의 실천이죠.
실천단 반성문헌 내그를 장하는게 정치의 여성주의적 재검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서서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어때요?

closing.

나는 그들을 동지라 불렀어요.
이미 버린 이름. 난 그들을 동지라 불렀어요.

이제는 사랑하게됩니다. 당신들의 그 오만한 진보를

'내가 지금 그 농담이라는 싸이클이 학생 운동에서 자리잡고 있는 물질성을 무시하겠다는 거니?'
'전체 운동에 대한 시각 없이 여성주의에만 매달려서 무얼하겠단 거야? 그렇게 운동하면 안 돼.'
'전체 대중 운동에 복무해야지 분리주의를 택하다니.'
너 같은 애들이 여성 운동을 퇴행시키는 거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 운동의 여성주의적 재검토가 어불성설이라고?
그러면 너의 전략은 뭔데? 대안을 말해봐. 어떻게 해야하는데?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전체 운동'은 물질적이거든요, 본명한 사실이고.
그 '전체 운동'에 목을 매고 나에게 여성주의를 '가르치려는' 당신들이 바로
운동의 기본정신을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모르냐요.
간절히 자기 생활의 성찰이야.
문제제적인 나에게 기꺼운 대안까지 요구하는 당신들이 바로
여성주의를 좌파에 리베링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아세요.

'그 애를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니. 물론 자기 불편한 것만 갖고 투덜대는 그 애를.
그 애는 더 이상 운동할 마음이 없다고 봐야될 것 같지 않아?'

.....
'속작해 조직에 그런 활동가는 필요 없어.'

나는 숙청당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요. 웃기는 말 말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여성의 정치생명과 여성적 정치생명에 대한 문건을 토해 낼 거예요.

나는 배신당했지만
내가 기아할 깊은 내가 잤어요.

>>'진보', 그 안팎에서 여성주의자로 살아남기 위해

by그림자출(관악여성모임연대)

현재 대학생활 4년째에 접어든 나는 내 머리를 아프게 했던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여기, 한편에서 서투르게 고집어낸다. 진보, 운동권/여성, 여성운동. 페미니즘은 주체의 정치학이라고 했던가. 나는 이 문장을 여성 주체의 경험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출발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어쩌면 내 글은 나와 다른 위치에서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그녀들의 경험을 지워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 다른 위치에 선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글을 쓰고 싶었던 것은 오직 나와 내 자매들의 두통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진영'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람들과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두통의 이유는 다층적이다.

>>약으로 치유되지 않는 두통

대학에서 처음으로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배우고 '운동'을 접하는 대학 내 활동가, 혹은 그 수위는 아니지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무엇이 더 '진보적인가'를 고민한다. 그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아직은 한국사회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³⁴⁾ 나 역시 고학번 선배들의 세미나와 과내 활동을 통해 문제의식을 약간이나마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좌파적인 이론과 활동으로 무장한 고학번들과 여성주의자 언니들 사이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갈등은 내 시선을 끌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들이 왜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저렇게 대립을 보이는 것일까.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이제야 그녀들이 왜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찰을 겪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간다.

여성운동을 하면서 알게된 여성주의자들, 그녀들 가운데 소위 조직활동과 여성운동을 함께 하는 상당수의 여성주의자들은 선거 철이 되면 조직의 선거를 할까, 여모 활동을 할까라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각 조직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드러내고, 선전하고,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따라서 선거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신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녀들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팠던 듯 싶다. 대학생활 초기부터 구축해온 그들과의 관계 망이 사라질까 아쉽고, 선거를 하면서 조직활동을 해야 '진보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도 하고, 그들이 갖춘 튼튼한 조직망과 물질 토대는 대중적인 여성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조직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몸은 '조직 혹은 학생회'에 있지만 마음은 '여성운동'에 있다는 말은 이와 같은 두통을 드러내는 것이라.

물론 이와 같은 고민은 여성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단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두 영역의 운동을 함께 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조직 내에서 처음으로 여성주의를 접하거나 혹은 조직 내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다른 이유에서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조직과의 관계맺음에 대한 고민에 덧붙여, 내부의 조직사람들, 외부의 여운단위 사람들 - 이 두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이는 그녀들은 어떻게 조직 내에서 여성운동을 할지 고민한다. 그녀들의 고민은 나에게 꽤 분열적으로 다가왔다. 관악여모에서 일할 때 가끔 만난 그녀들은 여성주의자들에게 많은 기대와 친밀감의 시선으로, 때로는 여운단위에 대한 폄하의 시선으로 다가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직 내 마초에게 시달린 경험 때문에 밖의 여성주의자들을 보면 반갑고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 여운단위와의 '차이'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기존 조직에서 말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야기되는 여운단위에 대한 비난을 일부 수용하지 않았을까.

한편 지금의 나처럼 조직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위치에 선 여성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머리 아프다. 학생운동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고 그 역사와 물질 토대들, 운동 주제들은 학내 여성운동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작동한다.

34) '자율성'의 영역은 대학 별로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억울하지만, 여성운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여성운동과 괴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목소리들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여성운동과는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볼 수 없다. '진보'를 독점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여성주의가 튀어나오면, 그 영향력의 결과 또 다른 사람들이 실체 없는 '부르주아 페미니즘'을 언급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갈등의 증폭, 혹은 드러나기

올해 상반기를 분노케 했던 많은 이슈들 가운데 '김규향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그 많은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교주'로서 환원론적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김규향. 그는 현재로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에, 소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김규향 사태에서 발견한 것은 그저 한국사회의 좌파진보진영이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김규향'이라는 한 지식인의 입을 통해서 다소 격하게 드러났다는 사실.

좌파와 페미니즘의 갈등은 맑스주의가 태동한 유럽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유럽과는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맑스주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맹점을 지닌 이론이며, 맑스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이나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 자체로서 여성주의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맑스가 설정한 노동자는 '남성'이며 (그건 공산당 선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모순은 여성이 또 다른 제 3의 계급³⁵⁾으로서 다양한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포괄할 수가 없다. (맑스주의의 이론적 맹점은 시타연니가 쓴 글들에 잘 나타나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사실 어떤 이론도 모든 사회적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 그걸 가지고 맑스주의를 지나치게 비판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맑스주의의 전통에 유토피아적 미래와 함께 '보편적인 인간해방'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싫어할 여성주의자는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은 가부장적 남성활동가들에 의해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을 삼켜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운동/계급투쟁을 해야 하는데 왜 저 여자들은 따로 문화제를 하고 반성폭력 학칙을 만드는 것인가 - 이런 질문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성운동, 특히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급진적 페미니즘(학내 여운단위가 육박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은 부르주아 페미니즘으로 단죄 받는다. 급진적 페미니즘이 여성운동에 남긴 소중한 유산들은 그 역락을 상실 당한 채 계급적 관점이 결여된 운동이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우리는 70년대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투쟁이 선구적 노동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대기업남성노동조합의 운동에 가려진 역사를 안다.³⁶⁾ 우리는 80년대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투쟁을 위해 자신들의 운동을 접어두고 정치투쟁을 함께 했던 한국여성노동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 80년대 정권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함께 운동하던 한국여성운동이 90년대 이후 그 관점과 운동방식을 다양화시키면서 독자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하자, 이에 대한 불만은 김규향의 '그 페미니즘' 명명으로 정리된다. 여성주의운동의 독자적인 노선이 그리도 절고려웠던 까. 사실 독자 노선화 라는 표현보다는 여성운동이 이제 진보진영, 사람들에게까지 주체의 정치학을 들이댈 정도로 역량을 축적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좌파들은 늘 페미니즘 비판의 선봉에 '부르주아 페미니즘'을 앞세운다. 사실 학내 여운단위에게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라는 명명을 하는 것도 우습다.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1,2학년 때 함께 활동을 같이한 사람들 아닌가? 조직 활동을 하면 프롤레타리아적이고 여성운동을 하면 부르주아적인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부르주아 페미니즘인지 묻고 싶다. 여성주의자가 부르주아면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주의자들이 계급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기에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라는 것인가? 전자는 아마도 아닐 것이고(만일 그렇다면 그 많은 좌파지식인교수들은 좌파가 아니게 되니까)후자는 어떤 문제에서 계급적 관점을 결여하는지 확실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나는 계급적 관점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억압이 기존의 '계급'관점으

로 설명하기 불충분하다면 당연히 다른 이론과 방식으로 운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남성진보지식인들 틈 사이에서 여성노동운동을 해온 여성노동자들과 여성노동권 이론을 구축해 온 여성학자들의 활동에서 드러난다. 왜 여성운동은 노동운동에 관심 없다고 툭툭 말을 뱉는 그들, 그녀들의 성과를 들이대면 그게야 입을 다문다.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은 상황은 절대적으로 여성운동에 불리하다. 사회변혁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 진보에 대한 권위는 상당부분 기존의 운동진영이 독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성운동에 대해 얼마든지 엘리트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철퇴를 가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변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성운동은 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가부장적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역시 가부장적 남성들로 구성된)에 의해서도 밀려난다 - 마음 아프게. 그래, 우리끼리 잘 운동하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말할 위치에 서 있는 여성주의자들이 별로 없기에, 억울함에 속이 탄다.

>>학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내가 한국사회 진보진영과의 마찰을 서술한 까닭은 학내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좌파의 상당부분이 학생운동에 그 연원이 있는 상황이니 당연하다. 오히려 대학의 경우 활동주체의 운동영역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의 수위가 개인의 정체성 차원으로 더 확장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학생운동은 거칠게 나누자면 반미투쟁/통일운동과 계급투쟁/노동운동의 두 흐름으로 나누어지고(NL과 좌파) 그 아래 수많은 정파들이 존재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NL은 민족주의의 가부장적 성향 때문에 여성주의자들과 일부 남성들의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NL의 경우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싸우긴 하지만, 아무튼 여성주의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고 정리되는 것이 대세다. 그러나 '좌파'는 보편적인 인간해방 아래 여성해방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전체와 '맑스주의페미니즘', '사회주의페미니즘'등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결합을 시도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남긴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세련된 여성주의적 정책을 구사한다. (물론 이것도 정파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자연히 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두통은 좌파진영과 여성주의자들의 갈등 속에서 드러났다.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여성주의자들을 밀어낸다.

좌파들과 겪는 일상적인 마찰들, 구구절절이 설명하러니 입이 아프다. 나처럼 조직에 직접 몸을 담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알고 지낸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면 할 말 없다. 여/활동단 그런 거 대신 전학투위 뛰자고 여/활동하자는 새 내기를 설득한 어느 좌파활동가의 예피소드, 관악여성모임연대의 반성폭력 운동은 연술적 차원에 그쳤고 물질적인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한 좌파 여성주의자의 평가, 맑스주의적 시선으로 여성주의를 바라보면 안되겠느냐는 좌파 마인드의 남성이 던진 질문, 노동자계급의 문화에는 풀한 여성주의 문화가 자라나기 힘들기에 남성노동자에게 여성주의 문화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아직 한참 남았다. 이 모든 경험은 사실 내가 재수 없는 풀통 좌파들만 만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하다. 사실 그 거대한 '진보'와 싸워서 여성주의자들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그 갈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우발적 사태는 아니다. 진보에 문제제기를 던지는 여성주의자들은 비판받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머리 아프다. 그녀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그 단위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짐을 느낀다.

>>문제제기, 그 분열적 시선

내 이야기를 해볼까. 소위 '위기의 경험'을 통해 의식화 과정을 거친 나는 서서히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자로 자신을 호명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 얼마나 서투르고 급박한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물성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면 난 괴로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폐기처분한지 오래된 '이상적인 페미니스트' 상에 사로잡혀있던 나는 합리적이고 조곤조곤하게, 그것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달미가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만 타이밍을 맞춰 탄지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투른 내가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또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옳다/그르다를 떠나서, 여성주의자가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옳은' 것으로 재단됨을 인지해야했다.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한 것을 보면 가부장제는 '공기처럼' 스며드는 게 확실한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시비조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단아'로 존재하게 되었다. 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제제기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35) '계급'이라는 단어가 가진 역사적 의미들이 남성들을 전제하고 있는 까닭에 사용하기가 절고려우나,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또 다른 억압을 겪고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써왔다".

36) "전노협은 비재벌 노동집약적 제조업체 중심의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기, 인천지역과 마산, 창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직기반상의 커다란 약점을 갖는다"(최정갑, 1992: 243)<한국의 근대성과 여성노동권> (김현미, 한국여성학, 2000)에서 재인용. 김현미는 남성지식인들의 노동 운동의 역사적 평가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운동의 오류와 실패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등장된다고 말한다.

그랬다. 기본적으로 계급모순, 경제적 문제가 최종적인 모순이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여성 문제를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나마 나은 사람과 함께 싸운 기억도 난다. 물론 나로서는 미칠 노릇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 내 말발이 팔리니까. 맑스주의적 틀로 여성주의를 바라보고 싶다가,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은 문화적으로 '쿨'한 인간을 요구하는데 프롤레타리아적 문화가 그것에 따라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억지 비판을 들은 기억을 떠올리면 이젠 웃음이 나온다. 아무튼 언제나 과격하고 감정적으로 읽혀지는 나의 글들을 보면 마음이 심란해져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글을 써보았지만 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작 짜증났던 건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좌파이론을 말하듯 훈계조로 말하는 그들의 자세였던 것 같다. 경험에 대한 공감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다 안다는 듯,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보'를 독점하는 것만큼 꼴사나운 짓거리는 없다.

나에게 돌아온 괴로움은 자기 분열적인 시선의 교차였다. 평소에는 친하게 잘 놀던 사람이, '진보'에 대한 의견 차가 그리 크지 않던 사람이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마초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을 때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머리가 멍해진다. 물론 '마초'라고 명명하고 단칼에 끝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관계가 대부분 아닌가. 그와 같은 분열적인 시선을 전체에 깔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달라고 아우성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글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건 그들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불가능하다. 게시판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나 내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교조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진보에 대한 자기검열은 그토록 저독해서 여성주의자인 나보다 마초인 그의 말이 가끔 그럴 듯 하게 들릴 때가 있다.

나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문제제기가 감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글쓰기의 기준은 사실 여성주의의 정치적 올바름이 쏙 빠진, 중립적인 글이다. 우리는 문제제기를 정당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논의할 능력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주술과도 같은 자기확신이다. 비타협적이다/대중적이지 못하다/감정적이다 - 이 모든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룰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비판하고 정체성을 다시 세울 능력을 지닌 주체이기에, 우리 스스로 그 비판들을 뜯어보겠다고 감히 말해본다. 물론 이와 같은 확신은 상황이 바뀔 때 교조적으로 빠질 위험이 있으나, 지금 당장 경계에 서 있는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다.

>>필요한 것: 고민의 강제, 주체에 대한 배려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조직 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 그 경계를 넘어온 사람, 그 사이에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 사실 이 모든 주체들을 무를 썰 듯 딱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주의자의 위치는 다양하고, 가변적이기에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녀가 '진보'의 검열을 피해 자신의 경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진보적인 남성들은 그 주체의 위치를 인정해야 한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진보'를 독점할 수 없음을. 당신들이 한국사회의 보편적 해방을 말하고 싶다면 여성주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당신들은 진보적인 담론의 독점을 인정하고, 아울러 여성주체의 목소리를 더 이상 자신의 경험으로 재단하지 말고 발언권을 그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당신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이 가부장적이지 않은지, 여성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남성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온 고정관념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여성주의자에게 '진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진보와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진보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진보를 상대운동에게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따질 때 윤리적인 차원의 요구에서 끝나야 한다는 의견에서 조직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개진된다. 그러나 학내에서 많은 경우 두 운동의 요구는 서로 다른 위상에서 진행된다. 학내 조직들이 여성운동의 이념과 운동방향을 추상적으로 비판한다면 여성주의자들은 그들의 가부장적 행위와 실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적이고 여성배제적인 발

언에 대한 문제제기나, 여성문제를 주변적으로 배치하는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그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조직과 남성활동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반성과 사과다. 그녀들은 일상에서 그들의 행위에 의해 배제되고 그 결과 운동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고민은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무성적인 활동과 조직구성방식은 필연적으로 여성활동가들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폭력, 남자선배와 후배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맥관계, 실제 활동에서 요구되는 남성적인 행동들(예를 들어 우렁찬— 목소리)은 여성활동가로 하여금 무성적인 존재가 되어 남성처럼 행동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살핌과 같은 여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어쨌거나 그녀들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또한 그녀들이 제기하는 여성주의적 문제제기는 대부분 남성활동가들의 목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중요하게 논의되지 못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배제와 차별의 기제는 매우 가까이 존재한다.

>>답답함.

글을 쓰고 나서도 답답하다. 정리되지 않는 경험들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가 그들의 입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단절되어 버릴 것인지를 생각하면 또 답답하다. 아직은 시작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경계를 오가며 상처받은 여성주의자들에게 가벼운 토닥임을 전하고 싶다.



>>좌파와 여성주의자들의 마찰: 메이데이 여/聲을 중심으로

by 당구(관악여성모임연대)

0.

안락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며 분노한다. 그것은 그저 개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이 아니기에 각각의 여성주의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좌파의 논리는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한 계기로 인해 (필연적으로)폭발함으로써 확인되기 마련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좌파 조직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를 감싸며 조직보위를 일삼던 그때, 그들은 현재 어디있는가? 학내 여운단위의 물계급성, 분리주의를 비판하며 여성관련 정책을 화려하게 늘어놓던 그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글은 올해 메이데이 여/聲(이하 여/성)과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이하 전학투위)에서 벌어진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자들과 좌파의 마찰에 대해 얘기하려한다. 그런데 여/성과 전학투위간의 논쟁을 이해하는데 며칠부터 며칠 사이의 전화통화와 자보, 즉 고 시기의 과정만으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뿐만아니라 그렇게되면 누가 바보같이 실수를 해서 이 사태가 됐다는 개인화원론과 해명을 믿니 안믿니 하는 유치한 문제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사실 문제는 전학투위에서 여/성이 왜 독자적 활동단을 꾸렸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을 꾸린 이후 이에 대한 각 캠프 좌파의 반응들에서부터 나타났다.

1. "왜 독자적 활동단을 꾸렸는가"

사실 여/성을 꾸리고 활동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성 활동가 각각은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했다.

>>"왜 독자적 활동단을 꾸렸는가"

이것은 여/성을 꾸리면서, 그리고 여/성 활동을 하는 단위 내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여/성 활동을 하는 캠프 좌파 조직이 있을 경우 거의 예외없이 "왜 '굳이' 독자적 활동단을 꾸리나? (전학투위 내에 있는)여성행동위와 왜 같이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런 질문은 애초부터 반신자유주의라는 기치 아래 모든 영역의 운동을 포괄하려는 "통합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체로서 전학투위가 '먼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왜 전학투위와 함께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부지런히 설명하려 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한다. "우리(전학투위)도 문제의식이 있다. 특히 올해는 각각의 독자적 운동을 인정하며 그것을 다양한 포럼위원회 형식으로 묶으려고 한다. 너희가 답답함을 느낀다면 실력을 키워서 압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다보면 여/성은, 사소할지도 모르는 몇몇 문제들에 대해 이렇다하게 납득시키거나 관철시킬만한 실력 없이 대중운동을 모르는 채로 전학투위를 '이탈'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탈'이 아니라 '선택(혹은 전략)'의 문제이다

지나고 나서야 분명해진 것 같다. 여성주의자와 좌파는 여성노동에 대한 접근부터 다르다. 좌파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더욱더 억압받는 계층인 여성노동자로 이어지기에 신자유주의의 폭력 앞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계층으로서의 여성을 주목하고 '반신자유주의'라는 전선으로 통합될 수 있다. 반면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일하는 여성으로 고민을 확장시킨다. 비정규직, 가사노동, 비공식노동이라는 것이 분절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일 자체가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여성의 삶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일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주목한다. 이 때 정세는 딱히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결혼과 출산하는 순간이 정세이고 커피심부름을 하거나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당하는 순간이 정세이고 수백년이 정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서도 차이가 난다. 하나의 전선이란 무리이다. 아직 우리는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단 하나의 구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과연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도 든다.

한마디로 판트가 다르다. 그러니 활동단도 다를 수밖에. 물론 이 이유가 서로 다른 활동단을 가지면서 연대 못할 것은 아니다. 하고싶은 말은, 이런 상황에서 전학투위와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다. 애초부터 전학투위와 같이 해야한다는 당위는 없다. 그것뿐이라?

>>좌파와 같이 무언가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다르다'는 것만으로 다 얘기할 수 없다. 우리는 좌파가 가지는 활동양식, 언어, 기풍 등이 힘들다. 아작은 문화의 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그것은 앞의 다른 친구의 발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좌파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든다. 여성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이 딱 요것에 대해 글을 쓰고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들이 만나서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계획도 짜고 일을 분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여성주의자들이 좌파와 같이 활동했던 경험들을 들어보라. 여성노동권을 외치면서 노동자 형님을 말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면서 조직보위를 내세우는 일들은 다만 과거일 뿐이었다. 치열한 평가와 반성을 거쳐서 변증법적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믿을 수 있는 여지는 그리 쉽게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달라." 여성주의자들의 활동목표가 가부장적인 좌파 변혁하기가 아닌 이상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면서 그것에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가르치기과정이 연대일지도 없다.

이런 경험들을 할지언데 어찌 메이데이라고 선뜻 연대하는 것이 가능할까.

2. 여/성과 전학투위

>>메이데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4월 중순쯤 여/성 기획단 회의에서 430문화제에 공연을 올리자고 얘기되었고 430문화제 스태프 1인에게 그 얘기를 전했다. 430문화제 회의 때 스태프 1인이 여/성의 공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학투위와 연대의 근거를 밝혀야하지 않나?", "(전학투위 내에 있는)여성행동위와 먼저 얘기해보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 얘길 전해듣고 여/성은 황당했고 며칠 후 문화제에서 공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30문화제 전날, 여/성은 430문화제 참가를 위해 숙소를 알아려고 전학투위1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430문화제에 단위로 참가하려면 분담금 10만원을 내야한다"는 얘길 들었다. 이후 전학투위 집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잘못 알고 말한거다"라는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여/성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하였다. 다음날(4월 30일) 관악 여/성에서 전학투위 비판 자보를 냈고 곧이어 전학투위 관계자1인의 반박자보가 붙었다. 내용은 여/성의 자보가 전학투위의 해명을 쓰지않아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과 여/성이 전학투위 사무실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직접 찾아오지 않고 사적인 통화로 일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등이었다. 그날 밤 여/성 1인과 전학투위 1인이 만나 전학투위의 공식적인 사과문과 여/성이 쓴 사건 경과문으로 공동자보를 만

들기로 하고 이전 자보를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여/성이 요구했던 내용의 사과문이 아닌 아주 형식적인 내용의 사과문이 왔고 자보 게시도 이미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전학투위 게시판에만 뒀을 뿐이다.

>>우리가 분노했던 이유

계기는 아주 시시했다. 430문화제 때 공연 하나 하려다가 못했고 분담금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대들 말마따나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여/성이 430문화제에 불참하게 되는 불행이 벌어졌다."

그들의 해명: "하나는 연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한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실수였을 뿐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4월 초부터 굳이 여/성을 따로 꾸리는 이유를 묻던 사람들이, 어찌됐든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문화제 공연에 대해서는 "전학투위와의 연대의 근거를 밝히라"고 말했던가. 한번도 여/성의 대답을 듣지 못했는가? 430공연을 하는 모든 단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각각의 공연을 하는 단체에 대한 이해(공연팀의 역사성 혹은 당일의 공연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430을 준비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99, 00, 02년 여/성, 여/성에서 말해왔던 것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공연 설명도 아니고 어떤 연대의 근거를 밝히라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니면 단순히 여/성이 전학투위와 같이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리티로써 겪게되는 과정인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그리고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전하는 사람의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전화를 받던 사람과, 같이 논의했던 사람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 다만 문화제를 참가하려는 단위에게 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살짝 찔 노릇이다.

3.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발언을 인정하라

메이데이 여/성. 굉장히 어설프지만 우린 즐거웠다. 정말 즐겁게 우리가 할 말들을 주절주절 할 수 있었고 이런 계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성 활동 이후 여운단위의 결집이 눈에 띄게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 커다란 발판이 됐다고 생각하며 이걸 매우 중요하다.

조직적 성과에 불과하다? 어떤 좌파 활동가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다. 분명히 조직적 성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성활동가들이 진보진영 안에서 그녀들만의 얘기를 다만 '하기' 위해서 조직적 발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것 자체가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할 말이 없다. 엄청난 역사와 뼈방한 이론체계를 갖춘 노동담론 내에서 여성노동은 여전히 부분변수일 뿐이고 여전히 여성노동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노동담론의 틀을 빌려 얘기되는 상황.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이 여성노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신없는 상황(2년간 한판 자료집에서 여성노동term은 그렇게 시작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은 이러했다. 동시에 '여성'문제에 대한 무수한 고민과 활동들은 여성노동자를 '여성'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발언하고 싶었다.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발언을 인정한다는 것은 좌파 담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발언과 담론뿐만이 아니라 좌파의 활동양식과 문화와도 떼어질 수 없는 문제다. 조직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각각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조직중심주의와 종이 한 장의 차이이다.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이 내포하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 질문하라. 모든 분석에서 누락되어 있는 '여성'의 존재는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하라. 백년이 넘도록 부제중심 맑스주의자들의 뼈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라. 노동자계급의 성별은 어떠한가. 그들은 각각 어떠한 위치와 조건에 처해 있는지 질문하라. 여성(따라서 남성)에 대하여, 노동계급에 대하여, 페미니즘에 대하여, 맑스주의에 대하여, 운동들의 실천과 조직과 역사에 대하여, 대답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만 한다. 그러한 속에서만이 우리는 '불회귀점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타, "지금은 부제중이오니 2번을 누르신 후 녹음해주시요"

>>여성노동운동사: 여성노동토론회를 시작하며

by 무후(고대 여학생위원회)

:: 여성은 언제나 일해왔다.

언제나 일름없이 움직이는 할머니들의 손은 대여섯 되는 아이를 길렀으며 남편의 휴식과 권위를 위해 봉사했으며 직접 논밭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도시로 도시로 모여들어 환기도 안 되는 공장 안에서 14-5시간동안 바싱을 들었다. 언제나 일름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손은 결혼해서는 아이를 길렀으며 남편의 휴식과 권위를 위해 봉사했으며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화장품이나 학습지를 들고 열심히 다리품을 팔았다. 그녀의 딸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노동유연화정책에 밀려 비정규직으로 착취되고 있으며, 여전히 남성노동력에 비해 가치절하되고 있다.

여전히 여성 노동시장 진입은 높지만 하고, 공/사 이분법에 의한 역할분업이태울로기는 견고하며, 가족이태울로기는 신자유주의의 여성착취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성은 공/사를 넘나들며 일을 하고 또한 일생동안 일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의 일에 대해 가지 부정과 성별화된 노동 경험의 차이의 무시, 주변부에 위치하는 여성노동자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여성의 일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과 투쟁이 요구된다.

:: 여성은 언제나 투쟁해왔다.

여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여성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들을 주장했다. 여성들은 집과 직장에서의 이중삼중 착취 속에서도 살아남아 투쟁했다.

이 땅의 여성노동자운동은 일제시대의 여성노동자운동으로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며,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 왔다. 여성노동자운동은 식민지 자본주의 하에서 민족차별 철폐와 노동조건 개선을 시작으로 해방과 분단 이후 미군정과 정권의 탄압으로 운동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중반이후 노동집약 산업 종사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투쟁은 전개되었고, 70,8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들의 투쟁은 남성 노동자 중심의 운동사에 있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며 간과되었다.

지금 여성노동자운동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노동자운동의 재구성/재평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 투쟁과정을 통해 자본이 어떻게 여성노동자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왔는지를 알고 이에 대응했던 투쟁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신자유주의적/가부장적 자본을 비판하며 운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계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여성주의자의 여성노동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내 여성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내/외부적 문제들 - 여성노동의 재개념화, 노동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그로 인해 노동자 정체성과의 괴리, 정세파악의 문제 등에 봉착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노동권쟁취를 위한 연대와 토론회, 3.8 세계 여성의 날, 메이데이 여/절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열정과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제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활동과 고민을 공유하며, 여성노동운동을 함께 일구어가고자 한다.

>>여성노동자와의 인터뷰: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그녀들을 만나기

"여성 노동", 여성과 노동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그 노동 가치가 평가되어 왔던 것과 "여성 노동"이라는 용어를 어색하게 만들어왔던 담론들에 대해 우리는 이제까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름있는 전문대는 아니지만 의상학과면 꽤 취직은 잘되는 편이란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문대라는 한계가 있어서 작년 여름부터 4년제 대학 편입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집안사정이 안 좋아지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말려서 편입준비를 하려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엄마말은, 졸업하면 어쨌든 취직은 될걸 왜 굳이 힘쓰고 돈 들여서 4년제를 가느냐는 거였다.

졸업 때가 되었고 나는 어디든 나를 뽑기만 하면 무조건 취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쟁취를 합격한 이랜드에 다니게 된거예요. 매장 코디네이터라 1주일에 한번정도 회사에 가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군데 정도 매장을 돌면서 매장 코디를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 출퇴근 시간이라는게 내가 하기 나름이라 다른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나보다 월급 조금 받는거에 비하면 참 편한거 같아요. 월급이요? 한 달에 7~80만원 정도.

계약직이에요. 옛날엔 이랜드에서 매장 코디를 직접 고용했는데 근래에는 중간에 아웃소싱업체를 뒀서 거기서 나를 고용하는 거지요. 이랜드에서 월급을 아웃소싱업체에 주면 그걸 다시 나에게 주는 시스템. 1년마다 계약하는데 옆에 언니 보니 7년째 다니고 있더라구요. 물론 계약직이라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비교적 만족해요.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보진 않았어요.

매장 코디가 어때야 한나라는 교육을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몇 번 돌아다니면서 눈치로 아는 거지. 동료들이 랑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서 직장 동료랑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매장 나갔을 때 사장님 사모님들과 신경전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매장 코디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거든요. 처음엔 어떻게든 해볼려고 하다가 지금은 그냥 안 해요. 대신에 탄 거하고.

가끔 지방에 매장 오픈하는데가 있으면 출장도 가요. 1박 2일로. 물론 차비랑 숙식비는 회사에서 주죠. 그때는 영업부 직원들이랑 가끔 술 마실 때도 있긴 해요. 불안이라면, 요즘에 좀 안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말하길 대리님한테 3박4일 휴가 언제 쓰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원래 매장 코디는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언니는 7년동안 여름 휴가로 3박4일 썼다고 말하니깐 인심쓰듯이 그러면 다녀와라 라고 하는거예요.

퇴직금이란 월차는 있어요. 그 밖의 것은 모르겠어요.

저축은 없어요. 집에 일정부분 돈을 주기 때문에. 일 마치구요? 그냥 집에 있어요. 다른 직장을 구해볼 맘은 없어요.

-22세, 이랜드 매장 코디네이터

친정은 수출용 스웨터 공장을 해서 그럭저럭 잘 사는 편이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계속 집에만 있었다. 아이가 들인데 큰 애가 국민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노름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생활이 도저히 안돼서 남편한테 그랬다.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랑 애들은 내가 알아서 일해서 먹고 살테니까.

그 때 오빠랑 연계해서 친정 아버지가 하던 옷 공장을 내가 맡고 남대문에 옷 도매가게도 열었다. 그러다 오빠가 일본으로 가버리자 짧은 자금줄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 그때 안 갔던 포장마차집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간 게 남양주에 있는 산이었다. 산에 가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실 짓는 공장에 다니면서 주말이면 산에 올랐다. 암벽도 뒀는데 돌 사이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신이 나셨다. 그러다 그 공장이 구조조정되면서 다시 무직이 되었다. 이전에 스웨터 공장 정리할 때 남은 돈이 점점 떨어져가서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 싶어 무조건 일을 찾았다. 그래서 간 곳이 쇠 자르는 곳이었다. 아들은 위험하다고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나는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한지 한 달 조금 넘어서 손을 다쳤고 그 때 산채노협과 인연을 맺었다.(손 부상 때문에 지금은 암벽등반을 못하신다)

지금은 큰 아들은 결혼하고 딸이랑 같이 살며, 딸이 버는 수입으로 생활비를 낸다. 다시 직장을 다닐거나 물으니 그러겠다고 하셨다. 내가 '좀 힘들지않냐'고 물으니, 잘 될거야라고 밝게 말해서 내가 오히려 땀방... 일단은 생활비 걱정은 크게 덜고 있는 것 같았고 본인 스스로가 워낙 이것저것 재주가 많고 뭔갈 하고싶어해서 계속 부지런히 배우고 그걸로 일을 하고싶은 것 같았다.

-민기지는 않지만 59세이신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올해 25세인 그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천에서 종로로 매일 출퇴근한다. 그녀가 다녔던 대학이 소위 명문대였기에, 비록 돈 안된다는 인문대(- - 죄송합니다)의 모 학과였긴 했지만 그녀는 취직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했던 것 같다. 가끔 만나는 그녀들의 남자선배들은 대부분 대학 4년 내내 '폐인'생활을 했어도 어림사리 취직을 했기에.

그녀는 한때 고시공부를 해보기도 했다. 직장생활이 여성에게 힘든 현실과 공무원이 되면 좀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시공부는 생각 외로 어렵고, 힘들고, 적성에 맞지 않고, 돈이 많이 들었다. 취직준비를 결심한 그녀는 예상외의 험난함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와 학교 정보망을 통해서 인력 중원 계획이나 경험담을 수집했다. 그녀와 함께 졸업한 95학번 남자 선배들은 같은 노력으로도 여자들보다 쉽게 취업한 것 같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여자들보다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했고, 한편 그녀는 취직한 여자 선배들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다고 한다. 현재 자기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 남자선배들의 경우에는 취직하더라도 후배들과 만난다던가 학교에 가기도 하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인력 선발이 있을 때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현재 그들은 100%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다. 여자동기의 경우, 대기업에 취직한 여자동기나 여자선배는 1명도 없고, 공사나 외국계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은 약간 있다.

취업 '시장'에서 여자라는 성별도 불리한 조건이란다. 그래서 외국어나 경험 등으로 그 불리한 조건을 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하고, 신문 검색 등으로 회사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과 주요 시사에 관해서 그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취업에는 크게 서류전형과 면접 두 가지 과정이 있다. 그 가운데 면접 시험보다는 오히려 서류 전형에서 여자 지원자가 많이 차별받는 듯 하다고. 서류 전형과 최종 합격자 수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적다. 예를 들면 같은 과를 나온 남자 여자 졸업생이 있는데 여학생은 단과대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고, 다른 외국어나 외모까지 나무랄 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언젠가 그녀는 지방을 순환 근무해야 하는 회사 면접에서 지원자 모두에게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물어보시고 특히 그녀에게만(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남자) 지방에서 정말 근무 할 수 있냐며 농담조로 작서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현 직장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라서 대화가 잘 통하고 잡회근이 가능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다고 한다. 일의 특성상 뒷사람에게 큰 간섭을 받지 않는 것도 좋다. 단점은 노조도 없어서 회사가 감원을 쉽게 한다는 점. 그녀가 얼마나 직장을 오래 다닐지 잘 모르겠다.

-25세 취업전선에서 막 취업의 문턱을 넘은 여성

그녀는 지금 49세의 주부다.

그리고, 그녀는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이다.

그녀와 남편은 평범한 공무원이며,

그녀는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 까진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사 직업에 대해 그리 만족하지 못했었고, 그 당시 아이를 가졌었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사실 집안 분위기 역시 당연히 직업을 관두고 이제 주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 였다고 한다. 사실 그때 당시 주변 동료 선생들은 임신을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없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당연히 이제 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다.

"사실 교과대 진학한 것과 교사가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어. 그 당시엔 당연히 아버지가 그리고 선생님이 골라준 학과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난 영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지. 그리고 나서 얼마뒤에 선생이 된거야. 사실 선생이란 직업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 내 선택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지 선생님으로서 어떤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에 부치고...그래서, 아이 임신한 후에 그냥 직장 그만둔거지. 사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그 때 당시 내 동료들은 아무리 임신을 해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드물었어. 아무래도 선생이란 직업 특성상 육아는 그리 많은 문제가 되지 않는잖아. 방학도 있고...그런데 그냥 그만 뒀어. 학교에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것 보다 내 아이들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녀는 아이들 모두 정말 열심히 키웠다고 한다.

"개들 고등학교 땐 너무 힘들었어. 정말 내가 개들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 맘을 몰라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때 선생이라는 직업을 포기한게 너무나 후회되는 거야. 친구들을 보니 친구자식들은 엄마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이상으로서 존경하는 거 같기도 하고...그런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니 너무나 부러운 거야...내가 집에서 집안 일만 하나까 무시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한 번은 애들이 독서실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부침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난 사실 부침개 할 때도 생뽕 껍질을 벗겨서 그걸 갈아서 같이 넣어서 만들어주거든, 그때 생.뽕을 까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정말 잘 안까지는 거야...신경질이 나기도 하고...모든 게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녀는 자녀 교육에 특히 열의를 가지셨는데, 남편이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아서 당신께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었고,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선생이었는데 애들 교육하나 제대로 못시키겠냐?"는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셨다고 한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역시 큰 부담을 가지셨다고 한다.

"사실 딸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전기 밥솥이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준다고...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사실 집안 일이란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 편히 우리 집은 누구누구 집보다 더 깨끗해야 할 거 같고, 난 누구 집의 누구보다 더 꼼꼼해야 할 거 같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 취업주부가 그런지 몰라. 그리고, 특히 요즘 TV에 엄청 나오잖아. 먹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예전부터 식구들에게 인스턴트 음식 잘 안 먹이고 생.뽕껍질까지 벗겨가면서(웃음) 간식거리 해준 내가 자랑스럽기도 해. 그런데 TV에서 뭐.콩 갈아주면 나도 콩 갈아 줘야 할 거 같고...혹은 TV에 나오듯

이 나도 조미료 대신 양념을 직접 만들어 써야 할 거 같고...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부담이 크지..."

특히 요즘엔 굉장히 자신이 해왔던 가사 노동에 대해 회의가 오신다고 한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감 선생이 되었는데...그걸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우리 애들도 '엄마는 왜 선생님 그만 뒀어?' 라고 말하거나 '엄마 친구 멋지다.'라는 말을 들으면 막 서글퍼지는 거야. 그냥 난 이제까지 뒀었나...싫은게..."

-49세의 주부

>> 인터뷰에 앞서...

고대는 학내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고, 그리고 청소를 하시는 여성노동자분들은 용역업체가 고용하게 됩니다. 학교와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일년단위로 이루어지며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분들의 고용은 승계되게 됩니다. (현재 안암캠퍼스는 한 용역업체가 지난해에 있어 올해도 캠 전체를 맡고 있다.) 청소일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노동자입니다. 또한 이곳의 노동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기에 누구도 하려하지 않기에 어디에도 취업하기가 힘든 60여세의 고령의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여성노동자분들은 건물별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적게는 2분에서 많으면 7~8분까지 계십니다. 물론 7~8명이란 정도는 두개의 건물(경영구관/경영신관, 사대본관/사대신관 등의 경우처럼)을 담당하기에, 평균적으로 한 건물당 3~4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인터뷰는 문과대 건물을 담당하는 분과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고대에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60세라고만 하시고 연세는 정확히 밝히시지는 않으셨다. 고대에서 일하신지는 1년이 조금 넘으셨단다. 그냥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4명에서 담당하는 문과대 건물은 정말 만만치가 않다. 강의실이 크고 또 많으며 20개가 넘는 교수실과 화장실, 창문까지 종일 쏙고 닦고 닦고 닦고, 처음 청소 일을 시작하신 한달 동안은 많이 아프셨다고 한다. 지금은 숙달이 되서 편찮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고되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벽 5시부터 무려 11시간동안 일하시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퇴근준비를 하고 계셨다. 토요일은 조금 일찍 3시에 마친다고 하지만, 월차/연차/생리휴가 조차 없이 매일 꼬박꼬박 11시간을 일을 하시고 계셨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47만 5천원.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47만 4600원이었다. 고작 400원이 더 붙었을 따름이다. 정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아픈 현실이다. 몇 년 전까지는 월급을 월급 내역이 적힌 봉투에 받았으나 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기에 월급 내역조차 모르신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신 어머니는 여기에서 일하시기 전에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 시집와서 몇 년 후부터, 맡길 데도 없는 아이들을 그냥 집에 남겨둔 채 일을 나가셨다고 한다. 십수년간 설거지부터 음식만들기까지 온갖 일을 하시다가 힘에 부쳐 그만두고 6~7년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단다. 그때는 이미 어머니 나이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의 일을 하시게 되었다. 지금 월급은 식당 월급에 비해 1/3도 안된다고 하시며, 식당에서도 일할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셨다. 종일 서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일을 하지만 조금만 젊어도 다른 일을 하셨을 거라는,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여기 일을 안 할 거라는 말씀이 오래도록 남았다. 지금의 청소일은 여성노동자로서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처럼 보였다. 물론 바깥 일과 상관없이 가사일엔 늘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날도 퇴근하시면 이제 가서 저녁과 다른 집안일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다. 회사에서 정한 정년이라는 것은 없단다. 다만 어머니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몸이 허락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실거라고 하신다. 퇴직금도 없는 이 일을 하시며 그렇게 어머니는 또 하루를 보내고 계셨다.

-학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23세. 한국마사회 모 지점에서 매표로 근무하고 있음. 마사회에서는 각 지점에서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직접 관전에 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경마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마사회에서 일한지는 4년 정도이다. 매표원들은 몇 년부터 수십년씩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경마는 주말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에만 일하는 직장이다. 원래는 정규직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비정규직으로 체계가 바뀌었다.

매표는 전부가 여성이다. 마사회 지점은 과장이나 기사 등등의 직원들과 마권을 파는 매표원,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질서원(전부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마도 일종의 도박장이기 때문에 손님으로 전문 도박꾼이나 조직폭력배가 많고, 입이 험한 손님들이 많다. 또한, 동료들(매표원들)은 모두 여자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일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녀는 '개나 소나 다 (매표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매표원은 전부가 여성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쉽게 보는 경우가 많고, 돈을 잃는 경우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반대로 남자들로만 구성된 질서들에게는 그리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매표원들은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혼여성의 비율도 높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데서 나타나는 보수적인 딸이나 태도등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자들이기 때문에 겪는 생활의 고충들을 서로 말하면서 공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런점이 마사회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일종의 주말 아르바이트인 이 일을 언제까지 할거냐고 물으니, 취직하면 그만 둘거라고 한다. 또한 기혼여성들이 많을때, 대부분 소일거리로 일하거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아주머니들이 많다고 한다.

-23세. 한국마사회 모 지점에서 매표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

-사내부부 여성 우선 정리해고

by 당구(관악여성모임연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난 것이 죄입니까?"

해고당시 제 나이는 26세 퇴직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세 15개월을 넘기지 못한,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할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된 이유는 우습게도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남편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6백88명의 아내사원들은 지금도 눈에 밟히는 일터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99년 농협 사내부부 해고자)

0. 고용은 제일 나중에, 해고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60년 26.8%에서 1999년 47.4%로 표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³⁷⁾. 이런 수치를 놓고 일부에서는 여성의 노동권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용은 제일 나중에, 해고는 제일 먼저'라는 웃지 못할 공식은 1997년에 경제위기가 닥치자 여김없이 적용되고 말았다.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는데 이 때 여성에 대한 해고가 암묵적이면서 노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중 99년 1월에 농협중앙회에서 사내부부사원을 대상으로 한 인원감축을 실시하여 사내부부 762명 중 752명이 해고되었고 그 중 91.5%(688명)이 여성이었다. 이에 김미숙, 김향아씨는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원고 기각, 2심 원고 기각에 이어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사내부부사원을 대상으로 한 인원감축은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 생활안정자임이 인정'되고 그 중 대부분 여성사원들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부부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는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1. 농협 사내부부 우선 정리해고의 과정과 결과

"초과 인력 중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인력이외에도 정상 재직자도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과정임. 따라서 동료 가족이 퇴직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가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출 후 심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덜한 직원이 퇴출되는 것은 조직 내부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특히 부부가 동시에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현재의 구조조정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부부직원 중 한사람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함."-농협 인력구조조정 방안 중에서

>>명예퇴직 실시 결과

① 전체 762명의 사내부부 중 752명이 명예퇴직, 그 중 688명의 여성이 퇴직(99년 1월)

37)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노동 능력과 노동할 의사가 있는 인구인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 활동 인구는 만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비해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가정주부, 학생, 군인, 노령자, 심신장애자 등을 말한다.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원하기는 하나 여성을 배척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에 취업할 의사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들어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들을 '실망실업자' 또는 '구직단념자'라고 한다. 이들 실망실업자는 취업 의사를 포기했다는 측면에서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의 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실업률을 계산하는 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시장 여건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배제적 분위기만 있다면 취업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과 포함한 실업률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일』, 김이수 신영아 지음, 동녘

- ②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하지 않은 남성 10명 모두가 1년간의 순환명령 휴직상태에 들어감(00년 원직복직 됨)
 ③ 농협 여직원 총 퇴직인원 1,932명 중 1,056명이 다시 농협 계약직으로 채용(계약직 채용비율 66%)

99년 1월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당시 99년 감축인원 목표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농협은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목하에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강행하여 결국 그 중 752쌍이 해고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해고당한 사람 중 91.5%(688명)가 여성이었다. 이에 지난 1999년 6월,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한 김미숙, 김향아씨는 부당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심 판결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부직원들인 원고들과 그 남편들에 대하여 수차례 명예퇴직을 종용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원고들의 남편들이 순환휴직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후에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순환명령휴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직원의 일방을 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리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피고가 인원감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부직원의 일방을 대상으로 정하였을 뿐 아내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그 어느 편이 퇴직할 것인가는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실제로 남편이 퇴직한 경우도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그와 같은 퇴직의 종용을 두고 실제로는 아내인 사원이 퇴직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의 사례로 미루어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해고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인정과 같이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명예퇴직을 종용한 것을 두고 원고들을 압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시 피고가 처한 사정과 제반 사회연건으로 미루어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또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직원들인 원고들과 그 남편들에 대하여 수 차례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원고들의 남편들이 순환휴직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후에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명예퇴직에 의한 인력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로서는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경우 해고기준으로 부부직원의 일방이 그 대상으로 되는 것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합리성을 결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점을 들어 이 사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종용한 피고의 행위가 신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 및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제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법적 쟁점-사실상 사내부부 '여성'우선 정리해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해고 종용의 과정과 정리해고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재판부 말대로라면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한 비율이 91.5%나 되는 것은 기막힌 우연이란 말인가?

사내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순환휴직대상자가 될 것이며 이후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은 당연히 '아내'의 퇴직을 염두에 둔 소리이다.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관념이 일반화되어있는 상황에서 '가장'을 불모로 잡고 유동적인 노동자로 생각되는 '아내'의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상식이자 경험적으로도 그랬다. 한해 전인 1998년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단행되었던 사내부부 정리해고에서도 대부분 '여성'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농협 측도 미리 알고 있었다(인력 구조조정 추진 방안, 농협, 1999년 1월 6일자). 이에 따르면 농협 측은 '여성'의 정리해고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을 터였다. 실제로 4년동안 알리안츠를 상대로 싸웠던 여성노동자 4명은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소송까지 내느냐"는 눈총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꾸로 강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있는가? 비슷한 사례로 얼마전 승소한 알리안츠 생명 사내부부 여성 정리해고의 경우 재판부는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며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 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한 것은 정리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한 부당해고이자 강요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농협

재판부는 "농협의 경우는 '강요'가 아니라 '권고'였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강요와 권고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안나는 이야기이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1주일 동안 매일같이 친척들이 굳이 #에게만 전화를 걸어 "아휴, 이제 #는 시집갈 때가 됐네. 만일 #가 시집 못가면 부모님은 얼굴을 어찌들고"라고 얘기했다면 이젠 다만 권고인가 강요인가? 음.. 좀 어거전가? (혹.. 사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다. 가끔씩.. 죽을 맛이다)

뭐, 여하튼 재판부가 정의하는 강제성의 말마따나(이렇게 말한건 아니지만)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은 이상 강제가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91.5%의 여성이 퇴직한 것에 대해 차별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차별 개념의 확대-간접차별을 중심으로

간접 차별은 차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성차별적 관습과 관행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텔 인사관리제도' 논쟁 이후 1999년 고용평등보호법(이하 고평법) 3차 개정시에 차별의 정의 규정에서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간접 차별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EU법을 기초로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자.

- 1) 간접 차별의 개념은 외관상으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나 규정, 관행들에 의해 야기되는 차별을 지칭한다.
- 2) 간접 차별은 외관상의 성중립성 여부에 따라 직접 차별과 구분된다.
- 3) 특정 성에 속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경우 간접 차별이 된다. 이 때 절대적인 수치와 비교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백분율로 판단한다.
- 4) 간접 차별이 행해졌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차별이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이러한 차별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정리해고는 고민할 것도 없이 명백히 '성차별'이다. 기업의 성차별적 관행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개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3. 비현실적인 전제들

당면한 법적 쟁점 이전에 이러한 여성 정리해고가 발생한 원인은 지경도록 듣고 경험한 이 농의 가부장으로 똥똥 똥똥 사회 때문일테다.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에 대해 가볍게 따지고 통쾌히 날려버리자.

>>사내부부(맞벌이부부)는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인가?

만일 그렇다면 대부분의 부부는 생활안정자일 것이다. 돈을 벌고있지 않은 여성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단, 주의할 것!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면서 '노동'으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녀들의 수입은 생계유지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그것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든, '가게 일을 조금 돕는'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부분의 부부는 사실상 맞벌이다.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라는 생각은 '혼자 버는 가정에 비해서'라고 전제하지만 사실상 그런 가정이 별로 없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농협의 사내부부는 둘 다 정규직이었다는 점이지만 그것이 한 사람이다. 특히 여성이 해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38) 종래 성별에 따라 구분되던 이중 직계제를 폐지한 후, 일반직 종합직의 직군별로 직무와 근로 조건을 구분하는 인사 제도. 종합직은 기업의 핵심 직무를 담당하고 승진의 제한은 없으나 기업의 전근 명령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으로 언제든지 전근을 가야하는 반면, 일반직은 강제 전근은 없으나 임금 승진의 기회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직군의 구분에서는 직무 능력보다 결국 '전근 가능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는 셈인데, 이러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낮은 직군인 일반직에 물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수입 중 한 명(남성)의 수입은 생계 전반을 책임지고 다른 한 명(여성)의 수입은 부수입이나 저축용(즉 여유분)이라는 전제 또한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현명한 가정에서 노동자 1인의 임금으로 생활비를 대는 것은 무지 힘들다. 얼마전 초등학교 급식사 실태조사 결과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중에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30%에 불과했고 급식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절반 이상의 여성이 식당 등지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이 실제로 생활비에 들어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저축 좀 하거나와, 그것이 사치인가? 다 먹고살자고 저축하는 건데 그것이 기업의 경제위기비용을 대신하는 방파제가 되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남편(남자)이 직장에 다니는 게 우선이지-가족임금이데올로기, 이젠 구리다 구려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모두다 기억할 것이다. 노조에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식당 여성노동자들에게 결국 회사측(맞나?)에서 제시한 합의안 중 하나. "(여성노동자의)원칙목적은 안되지만 대신 남편이나 아들을 고용해주겠다." 그 합의안을 받아들이신 분도 있다. 그 분들을 탓하거나 비판하고싶지 않다. 다만 슬프다. 목숨 건 투쟁의 결과도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못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다. (하다못해 돈이라도 좀 받아서 몸에 좋은 거라도 먹으면 좀 덜 억울하리나...) 남자들이 집안의 가장이 되거나 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명목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남편, 남성이다.

농협에 취직하기까지의 여성의 노력, 경력은 아무 소용없다. 직장생활에서 여성이 두는 의미나 계획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에서 가족경제를 고민하다보면 여성이 자진퇴사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명예퇴직한 여성 노동자 중 66%가 다시 똑같은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퇴직한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한번 퇴출된 여성은 다시 더 낮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가게된다.

4. 송소를 기원하며..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듯하다. 가부장적 사회,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농협 여성 해고자에게 열렬한 연대의 감정을 듬뿍 담아 송소를 기원하자. (예금.. 마무리가 넘 단순한가?)

>>대학 내 여운단위들의 여성노동 거듭나기

1. 성균관대학교 18대 총학생회 Her/心/탄/화의 여성 노동 나기

□ 상반기 여성 노동 활동

1. 겨울 방학기간 중 전국 여성 노동 조합과 연대

: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비디오를 전여노 분들과 함께 보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대학내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의 현실에 대한 토론 진행

이후 대학내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의 최저임금준수 여부, 근로 환경,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 프로그램 진행 착수

BUT 총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거의 결함하지 못함.

2. 3·8 여성 대회

: 전여노에서 주최했던 3/8 집회 참여, 여연에서 주최했던 문화관 참여

3. 시그네틱스 노동조합 투쟁에 결함(4월~6월)

: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시그 투쟁에서 알몸 수색 문제가 드러나면서 총여에서 논의하여 결함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김부의 제안으로 알몸수색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유입물을 만들어 4/19 달리기때 배포하면서 우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시그네틱스 투쟁의 현실을 알렸다. 이후 메이데이를 준비하면서 학내에서 비정규직의 70%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법으로써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하여 대자보화 하면서 학내에서 흐름을 만들어 내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메이데이 당일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학내에서는 시그 속보를 전하는 메일링 작업과 시그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운동, 대동제 때 시그 투쟁 기금 마련 주점 등을 진행하였고, 그와 병행하여 매주 수요일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되었던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시그 투쟁이 영종 사장의 변함없는 입장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한강 대교 고공 시위가 2차례 진행이 되고 시그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고, 결국 시그 노조원 전원 단식에 돌입하면서 명동 성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단식 3일째쯤 시그 노조원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노사정위를 점거하고 단식 7일째쯤되던 날 쓰러진 동지와 경찰의 폭력 진압 협박과 무책임한 노사정위의 반응 속에서 노사정위 점거를 해제했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노사정위 점거 시기까지 함께 연대 투쟁하였고 현재는 시그 노조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시그네틱스 노조 투쟁에 연대하게 된 계기는 "알몸 수색"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가장 손쉽게 탄압하는 방법인 '성폭력'에 모두 분개하면서 시그 투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파업 투쟁이 만 1년이 되어가는 시기에 너무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산업은행 앞의 수요 집회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온 언니들과 50명 남짓한 언니들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다. 또한 언니들의 피땀한 절규가 우습다는 듯이 산업은행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 명의 경호원의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다. 여성 노동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언니들이 이 자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하며, 만삭의 몸으로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땀방울에 찬바다에 앉아 있는 언니를 보면서 여성 노동 단위의 열악한 투쟁 현실을 알았다.

언니들은 알몸수색을 자행한 구로 서장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주저 않으면 안된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참으면 다른 여성 동지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여성 노동 단위를 찾아 연대하면서 느낀 것은 그만큼의 열악함, 그만큼의 힘이었다.

그리고 한강 고공 시위에서 만 24시간이 넘게 한강 대교 아치위에 올라가있는 언니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 가였다. 지금 현재 어느 여성 노동자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공 아치 위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아치 위로 올라오면 뛰어내리겠다고 외치며, 목숨을 내놓고 있다. 여성 운동을 하는 우리는 "집회

는 너무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이라면서 집회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다른 여성 운동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운동이라면 우리는 잘못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시그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어디든 38 대회 이외에 메이데이 이외에 투쟁 단위에서 여운단위가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다. 물론 집회에 나가고 투쟁 단위에 연대하고 하는 것만이 옳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여성운동을 하고 있었는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성으로서 연대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고있는 투쟁의 모습이 외 그러한지 이해하려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뀌어나가되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는 2001년 2002년 두 해 동안 메이데이 여절을 준비하면서 노동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년 절감한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역시 노동에 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노동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시그네틱스 투쟁에 많은 힘을 보태지는 못했다. 학내 상황을 파악하며 가능한한 결합하려 했지만 확실히 김부들이나 총여 내부에서도 자기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듯 하다.

2. 고려대의 여성노동운동, 정리해본다

>> 10대 여위의 여성노동운동 관점잡기

10대 여위의 여성노동운동의 시작은 "여성노동 현실 알려내기"이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 점차 다양해지는 노동유연화 속에서 취업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예비 실업자 여대생 등의 현실을 그대로 알려내고자 함이다. 여대생이 흔히 갖고 있는 커리우먼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 정체성까지 고민하였다. 여대생은 취업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대부분이 개인 역량의 증대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부터의 여성차별은 사회 내의 구조적 문제이지 결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이에 이러한 사회 현실을 알려내는 것을 운동의 시작으로 삼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 앞에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그녀들에게 용기주기"이다. 선행자의 고민/경험 공유를 통한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독립에 대한 희망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노동은 취업문제나 비정규직 등 현실에서 가시화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노동시장 내 여성의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 못지않게 여성노동 자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위는 sexuality와 노동의 접합점을 찾고 '노동'개념의 확장을 비증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을 노동과의 평등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여성노동에 대한 재개념화 혹은 가치 발굴은 운동에 있어 지형을 넓혀 간다는 점에서 논지와 설득력에서 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여성노동 담론에 있어 여성노동과 섹슈얼리티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다만, sexuality가 여성노동에서 자원이자 매체의 기제로 작용한다는 등의 입장들을 학내의 운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 내지 못한 점이 반성의 지점으로 남았다.

>> 고대의 여성노동운동 집어보기

3월:

38 세계여성의 날 - 전여노조와의 연대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완전적용, 여대생 취업문제를 기조로, 교양학교 진행 / 여성노동 운동사 사진전 / 3월 7일 '2002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노동자대회' 참여

5월:

메이데이- 2002 메이데이 여/절 참여, 학내에서는 학내의 여러 여운단위들과 '여성노동주간'을 진행. 여위 차원에서 여성노동워크샵과 학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와 (메이데이 당일 여성노동자분들과) 떡간치, 학내 여운단위와 함께 '밥꽃양' 상영하고 이후 세움터후원주점

7월, 8월:

땃물굴리기와 함께 땃물굴리기 총회/여성노동학교 준비

농협 사내부부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위한 1인시위 참여

10월:

제 7회 여성해방제: 여대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희망주기와 20대 여성의 독립과 자립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

>> 여성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운동을 함에 있어 그 사안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노동을 노동,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등의 거대 담론과의 교차적 위치에서 고민을 하면서 또한 그러한 담론 안에서 매몰되는 거대 담론의 맹점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즉, (여성)노동에 대한 재개념화라는 과정을 통해 여성 노동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의 시기적 정세와 담론 쫓아가기에 바쁜 듯한 모습 속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관점을 잡는 것은 내부의 학습적 역량과 지속적 고민을 요구하기에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여느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운동 또한 운동인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여성노동은 개인이나 단위에 따라 인식이나 운동의 수위 차가 크다보니 더욱 운동인자의 역량이 강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고대의 전영을 보았을 때, 여성노동운동 부분에 있어 그 내부 역량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월이라는 부분이 학습이나 운동의 역량까지 보장하지는 못하고, 매년 바뀌는 주체 속에서 역량의 내부축적의 어려움이 있다.

정세 파악 역시 운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외부의 개별 사안을 단순히 학내에 알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전영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중요하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세에 매달려 아니 개별 사건에 매몰된 관점과 운동을 보이기 위해 정세를 생산적으로 학내에서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내 여운단위로서 여성운동을 하는 데 어려움/한계로 지적되는 외부적 요인을 생각해 보면 - 현재 대학 공간에서 학우들이 노동이라는 담론에 보이는 거부감, 대학생의 정체성과 노동자 정체성의 괴리감, 여성노동을 전체 노동 세력과 대립되는 것으로 혹은 부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 등이 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여성노동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관심 속에서 여성운동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한 운동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우들에게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여성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노동운동이 개별 사안(사건 혹은 쟁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더불어 의식적 차원의 변화를 고민한다면 역시나 노동자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3. 관악여성모임연대, 여성노동운동하다

■관악 여성노동운동 정리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면,

>>2002년

>1월 땃물굴리기 총회

>1/12 대학내 여성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준비(땃물굴리기), 참가

>1월 중 인터콘티넨탈 호텔 룸메이드 연대 집회

>3월 초 여성일터 3.8 세계여성의날 준비 -자료집 파일로 묶음

-3/4 자보: 38의 의미, 한국여성노동운동사 사진전, 여성의 일에 대한 스티커설문자보

-3/7 아침 선전전: 리플렛

-땃물굴리기의 공동 성명서와 리플렛

>3/23 땃물굴리기 총회

>3/28 밥꽃양 자보 '밥하는 아줌마들, 투쟁의 꽃이었다가 정리해고의 희생양이 되다'

>4월 2002 메이데이 기획단 여/절 결합(땃물굴리기)

여성은 일/한/다 여/성/이 일한다 2002년 mayday활동단 여/성 -자료집

-4/15 활동 시작<PC 왕PC>

-4/18 자보 '여성에게 일이란', 여성노동권, 생리휴가, 보육권, 최저임금, 비공식노동

-4/23 리플렛12 아침선전전& 게릴라 선전전

-4/25 여/성 문화제

-4/29 토론회: 여성노동, 나머지공부 (사회대 학생회와 공동주최)

>4/30 비정규 중소기업 여성노동자 대회 참가

>5/1 112주년메이데이 노동자대회 참가

>4월 중 전여노조 급식사 실태조사 부분적 참가.

>5/9 여/성 평가자보 '여/성 어떻게 활동했나'

>6/23 댕글 굴리기 총회

현재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전여노조) 서울지부 연대 테이블 올림대를 제안 중이구요, 8월 13일에 서울지부와 간담회를 했어요. 불안정노동절계연대에서 제안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같이 하고있어요.

▶ 꼼직한 활동에 대한 평가

-메이데이 여/성

여성노동을 접근하는 개념부터 수많은 이슈들을 여문화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의 시기. 다양한 선전방식과 여성노동의 성질을 잘 잡아낸 문화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자료집 목차★

1. 왜 여성의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가:

여성의 삶과 일, 노동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여성노동을 뱉 수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2. 여성은 일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 현재 여성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여성적 일

3. 여성에게 노동권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차이의 전략

4. 노동시간 단축

5. 생리휴가: 차이의 전략, 모성보호, 남성적 노동모델

6. 보육문제, 육아휴직

7. 최저임금/ 가혹임금제 비판

8. 비공식 노동

9. 우리에게 남는 문제들

-여노와의 연대, 외부 연대 사업

실태조사를 같이 했다. 4월에 급식사 실태조사, 현재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에서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이를 조직적으로 남기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급식사 실태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노와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연대 사업의 경우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하되 꾸준히 고민을 지속해갈 안정적인 학내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댕글 굴리기, 고민들

-여성주의적 노동개념, 노동에 대한 시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리휴가의 경우 이를 사회적 재생산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로 가져간 것은 돌파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연구나 고민이 부족하다. 공부를 해야돼...-.-

-공부를 해서 세미나와 토론회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최저임금제의 경우 여성노동권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다. 긴박한 정세와 별도로 꾸준히 종합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업(예를 들어 메이데이 여/성)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여대생이라는 정체성: 생산적 여성노동자와 다른 부분 존재. 물론 이중노동이나 전반적 고용의 불안정화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괄하는 부분이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여성노동쟁점 관련 사건들은 보통 생산적이나 서비스 판매직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많이 함. 이때 학내에서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미나: 기본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발굴할 만한 이론이나 이론적인 고민들을 자체에서 생산하지 못함. 하기가 요새 어느 단위에서 그런걸 하느냐만 유독 여성노동에 대한 학습은 다른 부분에 비해 커리큘럼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별화된 학습 커리큘럼이 있다면 고민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4. 연세대의 여성노동운동이야기

★시기별 사업과 활동정리

> 3월-14대 총여학생회 여성 노동권 쟁취를 위한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 댕글 굴리기 참여

> 봄학기 동안 새내기와 함께 하는 여성 노동 세미나 진행

> 4월 2002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 결합-2002 메이데이 여/성 연세 활동단

[112주년 May-Day, 여성의 눈으로 노동 바라보기] 자료집 발간.

노동 정세와 여성 노동 수기 자보전

> 5월 6일 5월 8일 [여학우 취업대란] 행사

-변재관씨 강연회

-여성 노동에 관한 영화 상영->"재희 이야기"와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어선배 4명과 대화

> 6월 8일 "여성 노동자 영상 보고서" 밥.꽃.양 학내 초청 상영

-상영과 관련하여 여성 노동 자보전

> 6월 13일 댕글 굴리기 총회

> 7월/8월 댕글 굴리기 여성 노동학교 준비에 참여

★어려운 점들

>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과 계획된 사업들로 인해 여성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의 부재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여성 노동 사안들에 대한 고민과 논의 부족

-세미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논의들->진부한 세미나 커리큘럼-이 틀 안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난제...

> 여대생의 위치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보는 시각의 어려움

-취업대란 사업과 밥.꽃.양 학내 상영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연결점들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대개 생산적 노동자를 중심의 이슈들이 제기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한 여성 노동 사안에 대해 눈을 돌리고 논의를 해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FENERGY COPYLEFT!!

2002 여성연대한판 정보수집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대답을 해주신 단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을 맞이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바로 일 년에 한번 전국의 여성주의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성주의자를 안다는 것에서부터, 학교는 다르지만 활동에서 겪는 세세한 것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힘주고 힘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작년에 이어 2002 여성연대한판 정보수집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여성주의로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많은 여성주의자들을 서로 알아보고, 그녀들의 활동과 고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 정보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대한 확인과 교류를 통해 보다 더 많은 FENERGY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운동 단위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 간단하게 단위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처나 e-mail, 홈페이지 주소 등도 꼭꼭 같이 알려주세요.

★지난 1학기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2학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싶어요.

- 내부 세미나의 진행이나 문화제, 토론회, 공청회 등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양에 구애받지 않아요.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들의 형태들 또한 매우 다양하지요. 학회, 소모임, 동아리, 여성위원회, 총여학생회, 연대체, 기타 등등. 형태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이 차이가 있지요. 가끔씩 현재의 모임형태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적인 한탄들을 들곤 하는데요, 각각의 형태가 가지는 특수성이 어떤 점에서 좋고 나쁜지 알 수 있다면 새로운 모임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단위의 모임 형태의 장단점, 그리고 운영 방식을 설명해주세요.

★현재의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부분들에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한지, 학내 여성운동 단위의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개괄하는 것은 이번 한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출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내에서 여성운동 단위의 포지션이 어떠한지, 성과로 남는 점과 힘들다고 느껴지는 점들을 간단하게(물론 어렵겠지만...) 길어도 되요) 적어주세요.

부디 금절같이 소중한 경험들이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소중한 소스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대학교 여성학회 소모임 페마레

국민대학교 여성학회 페마레는 소모임으로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대는 총여학생회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안타깝게도 그 명맥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마레는 국민대에서 처음으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모임으로 시작했기에 부담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략 7명의 인원이 페마레를 구성하고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주의의 가치를 들고 나온 페마레를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많은 단위에서 주목하였습니다. 그러한 주목은 페마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긴장감을 갖게 했습니다.

페마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교재나 커리큘리 세미나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내에서 여성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너, 콘돔 어떻게 쓰는지 아니?"라는 주제로 국민대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공동으로 김연정씨(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모시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대동계 기간에 학생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여성·인권 영화제'를 개최했지만 아쉽게도 호응이 적었습니다. 또한 화장실벽에 '알걸기'를 붙여서 여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페마레의 몇몇은 안티미스코리아에 참가하여 좋은 인연을 선보였습니다.

페마레는 학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성주의 단위라서 다른 단위와 연대는 불가능했고 또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타학교의 도움을 받고자 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페마레에 절실했던 공간의 문제는 총여방을 임시로 쓰기로 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예산문제에 있어서 계획했던 활동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여성주의 단위가 아니더라도 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는 종종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같이 갈 수 있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총여학생회가 세워지고 꾸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타의 여성주의 모임들도 많이 생겨서 학내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 www.freechal.com/female21

연락처 : 011-9063-1884 (무선)

e-mail : ohora123@hotmail.com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총여학생회 소개

◆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 좋은 충동 제 14대 총여학생회

차마 따라 웃을 수 없는 농담을 들을 때,

"제 앞에선 농담도 못한다니까" 라는 소리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만다.

"여자가 웃자람이 그게 뭐냐?"

남자나 여자나 꾸미는 건 필요하지...라며 스스로를 수감시키려고 노력한다.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안에 뭉뚱 숨겨두었던 에너지를 드러내 봐

'여자인가?'라는 말로 우리를 가두는 것들, 이제 날려버려자구

약간만 용기를 내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어.

작은 움직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움직여 봅시다.

당신이 고민을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의 에너지로 일상을 바꾸는 바로 그 곳에

총여학생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속박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즐거운 삶을 위하여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 좋은 충동!!

전화: 2123-3645 e-mail: ysfem@yonsei.ac.kr

홈페이지: www.ysfem.or.kr

E-mail : ysfem@yonsei.ac.kr

Tel : 02)2123-3645

homepage : www.ysfem.or.kr

◆ 총여의 1년 나기

1학기 | 2월 새터 반성폭력대규 전달, 성교육 영상물 전달

- 2000년도에 마련된 새터 반성폭력대규가 각 단체 수련회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단체 학생회와

각 과반 학생회를 대상으로 교양을 실시했다. 그리고 각 단대별 새터 기간에 성교육 영상물을 상영했다.

•2월 24일 졸업식 때 새움터 물품 판매

-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 새움터에서 제작한 물품을 판매했다.

•3월 3-8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자보전과 여성마크 배지 제작

•3월 20일~3월 22일 [새내기 여성학 학교] 개최

-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여성학 세미나를 진행하여 커뮤니티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학창 시절의 나의 경험, 모성, 월경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토론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월 25일~3월 27일 여학우 새로배움터-“처음 만나는 자유-대학에서 여학우로 신나게 살아가기”개최

-새내기들과 함께 대학생이 된다는 것, 여대생이 된다는 것,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홀로 떨어진 외톨이가 아니라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일정 3월 25일: “스무살, 세상에 놓인 그녀” 강연-강연자 나운경

대학에서 여학우로 재밌게 살기

3월 26일: 요가-생기에 좋다는 요가를 함께 해보기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운동의 대안으로의 요가

3월 27일: 기분 좋은 밤

3일간의 새터를 정리하는 초특급 버라이어티 쇼

모노 드라마 : 여성학학교에서 못다한 이야기들(특히 고등학교 시절 얘기들),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적인 것임을 알아가는 자리

•5월 27일~5월 28일 body talks-“내/네 몸에 말 걸기”

- 일정 5월 27일: 내/네 몸이 궁금해?-학관 앞에서 “월경을 하다”마임(홍아),

생리대 드레스 퍼포먼스(성미량), 콘돔 사용법, 월경 팔찌 만들기

등의 행사 진행

5월 28일: 우리끼리 얘기 얘기하는 성에 대한 수다관-영화 [Girls on Top]과 함께

•6월 8일 ‘여성 노동자 영상보고서’ 밥.꽃.양 상영

•예산자치제 실시

•매월 떡볶이 수다 발행

-3월: “마초, 절대 친해져서는 안 됨...”

-4월: “여대생”-5월 body talks

-5월: “내/네 몸에 말 걸기”

연세대 여성학 자치도서관 FEMINARY

페미니리는 학내의 여성학·여성운동의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여성학 관련 도서들을 구입해서 학내에서 대출업무 하고 있으며, 여성운동 행사 관련 자료집이나 문서들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 관련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자료 수집 및 분류체계 구성 중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견고해져가고 있는 여성운동에 대한 반대의 주장과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잡지를 기획중입니다. 여성운동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함께 진행할 여성주의자들을 찾습니다.

homepage : <http://suny.yonsei.ac.kr/~feminary>

E-mail : feminary@freechal.com

연세대학교 여성자치언론 ‘두입술’

소개:

두입술은 첫입술과 아랫입술이 보게져 있는 우리들의 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입술은 여성학자인 퀴스 이리가라이의 ‘우리의 입술이 함께 말할 때’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이 제목을 통해 열려 있고 부드럽게 호르며, 풍부하고 다양한 성질을 갖는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이들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여성언어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성적 정체성

과 여성적 언어는 ‘남성성’과 대비되는 것으로서가 아닌, 기존의 가부장적 담론과 문화 재현의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이미지와 언어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두입술은 이러한 말하기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지한 일상 속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을 정교화하고, 학내에서 여성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려 합니다. ‘여성들이여,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두입술은 침묵하던 우리의 입을 열어 여성들 간에 함께 말하여 더욱 힘이 실리게 되고 즐거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직 두입술은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언니네 커뮤니티에서 ‘두입술’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이 있구요.

eehungle@orgio.net으로 메일 주시면 ‘두입술’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학기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

‘두입술’은 6호 ‘여자친구’와 함께 1학기를 보냈습니다. 애초에 여자친구들의 우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로 시작했던 6호의 기획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양한 경험,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했고 그 내용들을 우리의 언어로 풀어가며 한 학기를 즐겁게, 또 힘들게 보냈습니다. 학기말이 되어서야 6호 작업을 마무리짓고 제창전의 시간을 가지는 중이지요. 지금의 ‘두입술’들이 대체로 고학번이기에 방향을 맞이하여서는 ‘진로탐색 세미나’를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과 여성주의가 연결되는 지점을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적인 고민들을 넘어서 여성주의적으로 함께 살아갈 내일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길, 또 다음 기획을 만들어갈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2학기의 계획은 명확하지 않아요. 새로운 ‘두입술’들을 찾아내야 하고, 아직 착수하지 않은 다음 기획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뿐이지요. 얼마 전 서울대 교지 ‘관악’의 기획 덕분에 다른 학내 여성주의 언론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두입술’에게는 많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홈페이지 만들어야지, 우리도 후원회원을 모집할까, 등등, 새로운 계획들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긴 힘들군요.”

단위의 모임 형태의 장단점, 그리고 운영 방식

‘두입술’의 모임 형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아리나 소모임의 형태와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도 하지요. 공식적인 명칭은 ‘두입술 편집위원회’이지만 편집 위원회를 뽑는 과정도, 수습의 시기도 없는 것이 다른 언론들과는 다르구요. 명확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두입술 모임 형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입술’은 함께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고, 그렇게 모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움직입니다. 5호 작업때까지는 편집장이 있었지만, 6호에서는 편집장 없이 책 작업을 하는 일종의 모험을 하기도 했지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의 ‘두입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정해진 틀이 없고 약간 느슨한 규율 아래에 있다보니, 방만해지기 쉽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서로 그런 문제를 많이 느끼기도 했구요. 하지만, 서로의 소통으로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점, 그래서 하중이 많이 걸리는 책 발간 작업에서도 크게 지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은 즐거운 기억이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치 언론이라는 점인데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자치 언론이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굳이 300만원 넘는 돈을 들여가며 하도록 해줄 곳은 많지 않겠지요. 하지만 짐작하시다시피 재정 문제와 공간 문제는 무척 심각한 편입니다.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예산자치제, 기획사를 통한 광고 수입 등으로 발간 비용을 충당하고는 있지만 늘 부족합니다. 공간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지금은 총학생회실에 책 등을 보관하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내에서의 포지션, 성과와 힘든 점

학내에서 단 하나뿐인 여성 자치 언론, 그것이 ‘두입술’의 지금 자리일것지요. 잊지 않으려 가장 애쓰는,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타겟이라는 원칙은, 더욱 쉽고 일상적이며 재미있는 글쓰기를 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입술’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이기에 가지는 힘든 상황들이 우리가 느끼는 성과만큼의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그 가장 큰 부분이지요. 겨우겨우 2500부 가량을 만드는 두입술은,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게 이 책이 골고루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합니다. 하루면 다 나가버리는 책을 굉장히 비엄밀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두입술'이라는 여성주의 언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정도 부수와 만남의 적은 빈도로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즐거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힘겹기도 하지요. 그만큼 활동력이 담보된다면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힘들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단위의 형태는, 새로운 사람들을 받기에는 좀 힘든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기존 멤버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계층을 많이 부리다 보니 좀더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성자치언론의 문제에 대한 다른 언론 단위의 반응들 역시 전혀 힘이 되지 않고, 덕분에 공간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이 부분 역시 힘든 부분이지요) 때문에 두입술 자체는 잘 돌아가는 듯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어려움들이 고민들을 더욱 무겁게 만들기도 하구요.

어찌 되었든 두입술이 늘 하는 고민, 얼마나 많은 연세 여학우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이지요. 가끔 우리의 글을 공감하며 읽어준 사람이 있다는 후문에 너무나 기뻐하며, 그 소소한 공감들을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한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가 닿는다는 기쁨. 그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수많은 힘든 과정들은 우리 두입술의 삶을 스스로 바꾸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 관악여성모임연대를 소개합니다!

관악여모는 성 소모임, 성정치위원회, 여성국, 여성주의 학회, 여성운동체, 여성주의자 연대 등의 다양한 이름을 걸고 각 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들 가운데 활동 주제 및 생각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관악여모는 단위간의 연대 및 관악 전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굴러가는 모임입니다. 몇몇이 힘들게 여성운동을 하는 상황일수록 서로간의 운동정보 및 활동 공유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관악 전학우를 대상으로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구요. 관악여모에 연대하는 단위로는 인문대 여성모임연대(인연), 사회대 여성주의모임연대(사연), 동연(동아리 연합회) 여성운동체 <언니네>, 법대 여성주의 연대 테이블(여블), 자연대 여성주의자 연대 <여.파>, 공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여성주의자치언론 jouissance(쥬이쌍스) 등이 있습니다.

연락처: 언니네(www.unninet.co.kr) 커뮤니티 "관악여성모임연대"

★관악여성모임연대 활동일지

8/10~12 제4회 여성연대 한/판

8/22~23 '힘내라 여성운동' <관악여성운동의한해를돌아본다, 놀이판, 여성운동조직의운영방식-연대체에 관하여, 여성노동운동 토론회, 반성폭력운동토론회>

9월 법대 성폭력 사건 설명공개사와 논쟁

9/12 여교수할당제 관련 총장에게 보내는 건의문 전달

9/14~16 관악여성모임연대2001하반기LT

9/24 이원 자보 '서울대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사건조작기도를고발합니다.' '서울대성폭력상담소의편파성과상근자○○○의' 반성폭력학칙위반'을 설명 공개합니다.'

~10월 사건의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피해자 중심주의 비대위의 위상 등에 관한 논쟁

10/9~11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과 아시아 성매매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참여

10/29~31 제4회페미니즘문화제 '아주특별한용기'

-10/24 자보1 '일상적 성의 폭력친화성과 성적 자율성'

10/28 자보2 '그녀 침묵을 깨고 치유를 결심하다'

-10/22 반성폭력토론회1 <피해자중심주의, 자치적해결과비대위>

10/29 반성폭력토론회2 <피해자 정체성과 가해자 책임일치>

-10/30 성폭력피해자명예회복을위한장터

-10/30 여성영화제

-10/31 문화제 '아주특별한용기' -자료집

11/21 여성연구소 집담회 '대학내 성평등과 여교수 할당제'

11/29 대학내성폭력사건의올바른해결을위한토론회I

-학내성폭력해결을위한상담소의올바른방향모색 -자료집

12/6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II

-학내 성폭력의 자치적 해결 -자료집

12/10 이○○ 제명

12/20 새올터후원일일호프

1월 반성폭력팀 -자치규약 새로쓰기

1월 단위간 소통과 단위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시작

1/5 새올터 기활학교 참가

1/12 '대학내 여성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땀들 굴리기)

1월 2주~3월 2주(7회) 여모 겨울방학세미나 <여성의몸과정제성-엘리자베스그로크 수잔보르도 피터와움,인어 이리가레이 제3세계/탈식민페미니즘 주디스버틀러, 페미니즘과시민권>

1월 중~ 인터컨티넨탈 호텔 룸메이드 투쟁

1월 2, 3주 기지촌활동준비세미나

1월 5주 기지촌활동 참가

1월말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전략을 위한 토론회 제안

<1/28 군산 개북동 성매매 업소 화재 사건>

2/4 군산 개북동 화재 관련 자보 'Memento Mori, 그녀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2/4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항의 집회 집회 참여

2/5 강철구성폭력피해자들에대한명예훼손기소관련토론회 준비팀 결함

2/5~7 2002 상반기 관악여모LT

2/18 반성폭력 주제 교양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주최)

2월 중 2002 새대기를 위한 책읽기 길라잡이 편집위원회 결함

3/4 여모방 이사(통과연 쪽방으로--)

3월 초 여성일월 3. 8 세계여성의날 준비 -자료집 파일로 묶음

-3/4 자보: 38의 의미, 한국여성노동운동사 사진전, 여성의일에대한 스티커설문자보

-3/7 아침 선전전: 리플렛

-땀들굴리기의 공동 성명서와 리플렛

3월 성매매 기획자보(4회)

-1주: 언니들을만나다<산발의기활수기> 성매매이것만은알자

-2주: 성매매의실태와착취구조 팔릴수있는,그리고남성들이소유 할수있는

-3주: 구매자그리고잠재적수요자에게 그녀들의일?우리들의일!

-4주: 성매매어떤법적관점으로 실질적근절을위한활동들

3/11 여학생한영제 (총학생회와 공동기획)

3/15 교성부원 기자회견 성명서, 거리행진과 문화제 참여

3/19~21 자치단위 도서전 참여

3/23 땀들굴리기 총회

3/27 새대기를 위한 책읽기 길라잡이 발간

3/28 밥꽃양 자보 '밥하는 아줌마들, 투쟁의 꽃이었다가 정리해고의 희생양이 되다'

<3/30 밥꽃양서울상영>

3월말 서울대여성주의언론 Jouissance 장간호 발간

4/4 강철구사건관련1차공판을기하여재판부의올바른판단을촉구하는집회 참여

4/9 단위 프로젝트 정리판 '만나서두런두런 만두빚기' -자료집
 4/19 419평박질성매매반대booth설치
 4월 2002 메이데이 기획단 여/생 결합(땃들굴리기) -자료집
 4월 여성은 일/한/다 여/성/이 일한다 2002관악mayday활동단 여/생
 -4/15 활동 시작<PC 왕PC>
 -4/18* 자보 '여성에게 일이란', 여성노동권, 생리휴가, 보육권, 최저임금, 비공식노동
 -4/23* 리플렛1,2 아침선전전& 제릴라 선전전
 -4/25 여/생 문화제
 -4/29 토론회: 여성노동, 나머지공부 (사회대학생회와공동주최)
 4/30 비정규 중소기업 여성노동자 대회 참가
 5/1 112주년메이데이 노동자대회 참가
 4/29 철쭉아가씨 선발 대회 항의시위 &항의시한 전달 [관악구청]

5/4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반대시위& 리플렛 배포[대회장] (지방자치연대 총학생회와 공동)
 5/9 여/생 평가자보 '여/생 어떻게 활동했나'
 5/11* 교수성폭력투리틀기연대회의 결합
 5/13 미인대회 반대 자보
 5/14 대중계 마츠콘테스트
 5/14~16 대중계 새옹터물풍판매
 5/19 반성폭력관련 PC 결기
 5/25 총학생회 4인에 대한 징계철회 성명서
 5월 관악여모 성폭력사건 가해자 명예훼손 고소

6/5 100인위원회 후원 일일호프(교성부연구공동주최)
 -5/25 자보 '피해자를 법정에 세운 가해자의 적반하장 -강xx 사건'
 6/15 어모홈커밍데이 'feminist happy hour'
 6월 2002 여름기화 준비
 -6월 45주 기화 RP세미나
 -6/28~29 새옹터 기화 교양학교 참가
 6/23 땃들 굴리기 총회

7월초 여성연대 한/관 제안 (땃들굴리기)
 7월 5주 기지촌활동 참가
 관악여모 홈페이지 제작

8월 교성부연구 중간백서 발간 &공청회
 여성연대 한/관
 관악여모2002하반기LT

★관악여모라는 연대체형식은...

연대체라는 형식의 특성상 회의 및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주체들의 경험과 고민이 회의 시간을 통해 풀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사업방식도 각 주체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모아지기에, 그만큼 활동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관료적이지 않다는 면과 여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모에서 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모가 '관악여모'라는 이름을 걸고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체제인데, 연대체의 성격상 일의 부분이나 회의 주제 등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두기도 했었는데, 그럴 경우 집행부인 여모 사람과 집행부가 아닌 여모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지고 사업이 집행부에게만 집중되는 단점이 있었죠. 연대체는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관악여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은 수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현

실적인 문제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관악여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할 때 어느 수위에서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대강 '눈대중'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관악여모가 자치단위인 관계로 재정이 취약하고, 공식적인 혹은 대중적인 경로를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여러 정보들과 여모에서 하는 여성운동을 알려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정보차원의 소통을 위해서 여성주의 언론 유이생스가 생겼고, 지금은 여모활동을 알려내기 위해서 여모홈페이지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집행부가 없을 경우 외부 단위에서 여모에 문의할 때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대학의 총학생회나 위원회 형태의 여성운동체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여모의 위상이나 포지션의 문제...어렵네요. 간단히 적자면, 운동 내부적으로는 광역화 등의 여파로 각 단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자치활동이 줄어들어 갈수록 여성운동 주제 생산역시 과거처럼 한 공동체 내 지속적인 만남과 활동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각 주체들의 활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새로운 문제제기와 심세하고 날카로운 비판이 요구되는 만큼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각 주체의 역할을 끌어올리는 사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한편 대중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관악여모'는 성폭력 사건 공개자보 등으로 인해 광고도 안 하는데도 꽤 유명한 편이지만, 정작 여모에 대한 정보나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은 형편없습니다.(한마디로 실속이 없죠)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서울대 인문대여성모임연대

인문대여성모임연대(인연)은 98년도에 인문대 내의 과반별 여성주의 소모임 또는 세미나를 학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 해에는 그전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왔던 반성폭력 운동의 기운에 힘입어 소단위마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그룹들이 만들어져가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이겠지만-물론 00학번인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언니들로부터 전해들었구요) 단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고, 단대 차원에서 실질적인 여성주의 운동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인연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학내 전반적인 여성주의 담론의 흐름도 여러 조건들로 많이 약해져있는 상태이고 단위별 모임들마다 인자 재생산이 힘겹고()해서 인연 테이블도 아주 활성화되어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람들이 모여 사업기획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한 해 살이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자리에는 주로 과반의 여성주의 모임에 적을 두고 있는 이들이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과반의 페미니스트들도 여럿 함께 하고 있어요. 연대체의 성격과 단대 동아리의 성격 사이에서 진동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틀거리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단대 운동에 유효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맞다, 그리고 인연은 관악여모에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한학기 동안 인연이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겨울방학:

- 1) 새내기 새로배움터 인연 프로그램 준비-> 새터에서는 그전까지 있었던 인연 행사와 관악여모의 행사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각종 자료집과 뱃지, 포스터, 보자기 등을 전시하고 반성폭력 자치규약에 관한 작은 리플렛을 배포했어요.
- 2) 반성폭력 세미나-> 반성폭력 심화 세미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여성주의자로 주체화하기, 몸 담론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등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였죠.

5월 여성주의 한탕:

4월 말부터 준비해서 다양한 여성주의 행사를 했어요.

- 1) '그녀는 행복하다, 인연 5월 여성주의 한탕'-> 도서전, 시화전 (그녀는 말한다.), 장터 (그녀는 살린다.) 문화제 (그녀는 즐겁다.) 등등. 같이 준비한 사람 곁에서 지켜본 사람 모두에게 힘이 되고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6월-7월:

- 1) 기지촌 활동 세미나, 기지촌 활동-> 인연 차원에서 단위마다 제안을 해서 새내기들까지 포괄하는 기화 세미나를 했죠. 새

올터에서 주관한 기활 학교도 다녀오고요. 성매매와 기지촌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

요즈음은 몇몇이 한판 기획단을 하면서, 또 다같이 이후 인연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2학기에는 개강하자마자 인문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개정 운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제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가려 하고 있고, 전국여노와 연대하며 더불어 학내에서 여성노동권 담론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단원인 올밀대 결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현장활동 성폭력 사례집 백서도 기획 중이고요.

여성주의자들이 힘든 단위 상황 속에서 고립되어 무력해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손잡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합니다. 인연은, 지켜봐 주세요.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여성운동모임 "언니네"

그녀에게서 그녀에게로 팔을 뻗어 길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길은 둥근 미로가 되겠죠. 길을 잃은 그 자리가 다시 길이 될 거예요. 나는 이 곳 입구에서 건실한 나무를 골라 천천히 기쁨을 붓고 불을 피우겠습니다. 마녀를 데달았던 그 자리에 점고 굶은 지팡이들을 던져 넣겠습니다.

부뚜막에 올라 털을 세우고 얼어가면서도 눈에는 태양을 키우던 고양이들. 이 곳에서 발톱을 다듬고 서로를 쓰다듬어요. 함께 춤을 추며 소리를 질러요.

언니네로 오세요

unrine@orgio.net

위의 글은 저희의 공식적인 소개글입니다. 약간 모호하죠? 헛진 언니네와 헛갈리시는 마시구요. 저희는 99년에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동원 여성운동모임 언니네입니다. 동아리가 있는 여학우들과 단대 여성모임이 없는 여학우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답답해서, 혹은 머물곳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모여서 신입생들도 23학년들이랍니다. 여성운동체로서의 성격과 구성원들에게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받아야 했던 상처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힘을 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지요. 구성원들의 성격상 안정적으로 이월이 되지 않아 한동안 침체했던 기간들도 있지만, 요즘은 다시 살아났지요.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언니네 캐릭터 감히 부뚜막에 올라가는 미친 고양이 "미고"를 만들어서 홍보와 같은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사업들에 활용했어요.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 프로젝트 "복명, 부뚜막을 점령하라."

1. 3월 전관악을 대상으로 학관 여학생휴게실 홍보작업

포스터 제작, 부착

리플렛 제작, 배포

2.여휴 꾸미기

벽화 완성

게시판 부착(여성문화달력, 학내여성운동호름, 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등)-그러나 자꾸 누군가 떼내어서 1회에 그침.

수면실 개조(휴식공간과 분리)

★5월 3일 여학생 모임 "편악의 미친 고양이들 집합하라, 미고 반상회"

일단 동원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단대에 여성소모임이 없는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1. 홍보

반상회 초대장 배포: 올 사람에게 친근감과 꼭 와야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개인마다 초대장을 주었다.

포스터 제작, 부착: 학관과 단대에 여성소모임이 없는 사범대, 생활과학대를 중심으로 부착하였다.

2.프로그램

(자기소개) 미고들, 자기를 소개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 5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 3가지

(프로그램 소개) 반상회 순서

1. 미고 기지개 - 자기소개, 조각그림, 간식타임(샌드위치 만들어먹기)

2. 나즈막히 소근소근 - 여학생 토크박스

3. 미고 다시보자 - 반상회 마무리, 이름 짓기, 물렁페이퍼

★6월 동아리 성폭력 사례집 발간

겨울부터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동아리에 있는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사례들을 수집했다. 내용은 전반적인 동아리문화에 대해 짚어내는 정도로 하였다. 동아리방, 술자리 문화, 놀이문화, 성별분업, 동아리 포스터, 공간분리, 동아리에서의 연애, 그 외에 있는 동아리 문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중간 중간에 페미니스트 유머, 외모이야기, 성폭력 피해자 돕기 등에 대하여 들어갔다.

★7월 기지촌현장활동 세미나

새올터에서 했던 기활학교에 참여하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기본적인 관점에 충실하게 커리를 짜서 4차례에 걸쳐서 하였고, 1명이 기활에 참가하였다.

★세미나

1학기 중에는 여성의 역사4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미술, 음악, 문학 등의 보조커리들을 찾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언니세미나'를 8월부터 시작하였다.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단위 소개글: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내외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고 학내 여학우들의 대표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지요. 선거때 큰 줄기인 기초와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한해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내에는 '여성학 소모임인 '바리'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학 세미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외부 행사에 같이 참여하며 총여 사업의 실무적인 부분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1학기 활동과 2학기 계획:

두가지 기초였던 반성폭력과 여성 연대의 장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요.

반성폭력 부분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학과 김익기 교수 성추행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학내에서는 사회학과, 학외에서는 교성후원과 연대하여 서명운동, 수업 거부운동, 백서 발간(진행중)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 연대의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건강한 여성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여성주간&여성축제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행사로써 여성의 몸에 좋은 한방차 나눠주기, 여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와 양의사의 강의, 스트레스 해소법 공모, 여성힐링타임 I Will과 총여의 솔로마임 공연으로 이루어진 폐막제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 일상사업의 경우에 2주에 한번꼴로 여자화장실에 여러 가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제는 김익기 교수 성추행 사건 해결, 궁극한 여성 질병, 엠티나 센터등에서의 성을 주제로한 놀이 등등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설문조사는 학우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이는 특히 하부단위가 없는 총여학생회의 경우에 큰 자료가 되었지요.

★모임 형태의 장단점과 운영 방식

총여학생회는 이름 그대로 중앙기구 학생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회장단이 선출되고 그 아래에 집행국이 각각 부서를 맡아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아무래도 '학생회'라는 제도가 가진 권위적인 모습의 구성이라 할 수 있지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단과대와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현재 동국대의 경우에는 단과대 여학생회나 여성국이 전혀 없고 또한 학내 타 여운단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총여학생회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한학기에 한번씩 열리는 예산소위에 참가해서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의 중앙기구들과 합의하여 예산을 책정하지요. 총여학생회라는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와 소통할 때나 각 단과대와의 소통에서 어느 정도의 추진력이 담보된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

요 또한 단점은 역시 '여성운동'만을 할 수 없다는 것. 즉, 학내 여학생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주제의 경우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학내에서 여성운동 단위의 포지션이 어떠한지, 성과로 남는 점과 힘들다고 느껴지는 점: 현재 동국대 내에 여성운동 단위가 극소이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총여학생회 일을 같이하려는 사람들 또한 소수입니다. 학내에서 여성주의를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지요. 또한 이러한 상태는 '여성문제는 총여학생회만이 고민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생산하고 있는 듯합니다. 학내 타 여운단위가 없어, 주로 단과대 학생회에 연대사업을 제안하는데,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총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단과대가 같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성' 사안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와중에 성과라면, 교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꾸준히 해결 노력을 해왔다는 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관습화되어 있는 학생회 특유의 사업 진행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 중앙기구라는 점에 비해 활동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 등은 큰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주소: 서울 중구 필동 3가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
•전화: 2260-3614
•홈페이지 주소: www.l6women.wd.to
•이메일: dguchw@lycos.co.kr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꿈틀

- 양성 평등을 꿈꾸고, 가부장제의 틀을 깨는 모임 -

꿈틀은 동국대학교 내 여성주의 소모임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으니 이제 2년째로군요. 매학기마다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세미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 행사에 참여하거나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회비를 걷어서, 세미나를 통해 생각했던 바를 글로 모아 연말에 작은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함께 활동하고 의지할 만한 여성주의 모임이 별로 없다는 점이 활동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학생회와 달리 발언에 대한 제약이 없고, 활동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소모임인지라 공간과 물질적 지원이 부족한 게 어려운 점이지요. 활동 인원이 많지 않고, 관심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어려운 것 같네요. 저희처럼 분명한 기반이 없는 작은 모임은 그들끼리 의지, 연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이번 1학기에 '현실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들, 페미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정리, 비판하였고, 여성들의 사회화과정, 매체 속에서의 여성, 노동 영역에서의 여성, 마지막으 군대에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외 외부 행사인 여성영화제, 3.8 여성대회 등에 참여하였고, 2년 전 학내에서 발생한 K교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복직반대 투쟁,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방중에 성, 사랑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는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나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학기에도 1학기과 같은 형식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매춘과 동성애를 주제로 다룰 생각이고, 간단한 이론서도 읽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교수 사건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 생각이고요. 특히 매주, 혹은 격주로 여성과 관련한 소식, 의견을 대자보로 학내에 게시할 생각이고, 한 해를 정리할 문집도 만들 예정입니다.

많은 여성주의 모임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엔 지지해 주는 기반이 없어서 몇몇 구성원의 일사적인 의지로 버티나가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로 부터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폐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나가고, 여성주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담론)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껏 모임을 진행하면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학내 성추행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지만, 연대할 수 있는 모임이 총여학생회 정도 뿐이라 힘들게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학내 여성주의 모임이 조금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freechal.com/kumtl>

연락처: 019-9735-3560(최재원)

이메일: narang79@hanmail.net(김두연); chinadrum@hanmail.net(최재원)

●(이화) 여성위원회는요,

여성들을 사랑해요.

성별 역할을 무시하는 곳이지요,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없이 수다를 떨 수도 있구요.

회원자격 조건이 없는, 자치단위랍니다.

Tel: 02)3277-4708

<http://www.freechal.com/ewha7>

●여위의 1년나기

•3월

-3.8 여성의 날 전쟁반대여성연대(WAW)와 함께 여성의 날 행사 기획, 주관

-제 7회 페미니즘 문화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부장제로부터의 여행>

제 1일: 페미니즘 문화제 개막제

이상은, two-five (이화여대 재즈 동아리)

개회사와 율동, 여성위원회의 공연, 그리고 이화인과 함께하는 풍선 날리기

제 2일: 나에게로의 여행

•엽기 변장쇼-퍼포먼스 (홍아씨)

•전시- 음양

제 3일: 강연회-데이트 강간에 대처하는 방법 (민우회 간사)

제 4일: 오지여행

오지 여행기 중 몇 개 추려서 전시

오지 삼총사의 인터뷰/이화인들과의 만남

제 5일: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영화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자보건> 반성폭력 학칙 주제

•5월

-메이데이 女/聲 기획단 참가

-동성간 성폭력 사건 접수 및 해결

-대동제

퍼포먼스(with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9월

-공개 토론회 기획 중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 모임)

변태 소년 하늘을 날다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문화관 219호

홈페이지-www.freechal.com/flyinggurl

전화-02-3277-4712

1. 우리 모임명의 의미가 궁금하시죠?

우리는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 모임'인 '변태 소년 하늘을 날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레즈비언'이라는 외래어를 대체할 언어조차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 때문인지 아직도 우리들더러 '변태'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우리

는 스스로 '변태소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위문화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 스스로가 적극 수용해 드리낸다면,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들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을 날다'라는 의미는 궁극적인 여성 해방, 혹은 레즈비언 해방의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2. 우리 모임은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2001년 5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친한 몇몇 사람이 모여, 자유로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게릴라식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원 개개인의 이유로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전혀 활동이 없는 상태로 지속되다가 2002년 3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정식 자치단위 인준을 받게 되었고 '변태 소녀 하늘을 날다'는 정식 모임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치단위 인준을 받기 전, 2001년 5월부터 꾸준히 대내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 5 대동제-무지개 자보, 플렉카드를 통한 '존재 드러내기'

장기자랑 참여, 폐막제에 무지개 깃발

2001. 7 끼리끼리와 공동주최 '여성이란 인권쟁프' 개최

2001. 9 퀴어 문화제 무지개 2001 참가

2001. 끼리끼리 외 여성이란 커뮤니티 '반성폭력 네트워크' 참여

2002. 3 정식 자치단위 인준

2002. 3 3.8 여성의 날 기념 무지개 시위(waw,끼리끼리 등) 공동 주최

2002. 5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 공동 기획

2002. 5 이화 대동제 일일 주점

2002. 6 퀴어 문화제 무지개 2002 공동 후원 단체

2002. 7 한국 동성애자 연합 공동 참여 단위

2002. 8 제 5회 청소년 인권 학교 공동 주최(친구사이, 캠프제다)

2학기-9월에는 최초로 '레즈비언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 우리 모임의 특징은요.

위의 대외적 활동 외에 변태 내부의 활동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레즈비언'이라는 구성원의 특성상 다른 모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오프라인 상에서 실질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활동을 기획, 실행하는 스태프와 온라인 상에서 모임을 지지하는 정회원, 준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 두 구성원 집단들의 일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상의 모든 모임이 공지되어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개방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우리 모임이 다른 동아리나 자치단위와 다른 점은 오프 모임 외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지요. 이러한 커뮤니티 운영과 모임의 성격이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레즈비언'적 정체성이 그 답이 되겠죠. 저희 모임이 비단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실존적 삶의 모습일 테니까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 자체가 '운동'과 분리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4. 우리 모임이 지니는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집회에 나갔다가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주의 모임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잠정적 아웃팅의 공포'가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나, 3.8여성 무지개 시위의 경우에 모든 참가단위가 무지개 깃발을 들어서 동성애자 단체를 배려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형태의 연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여성주의 진영 내 레즈비언 운동모임이란.

"레즈비언들이 스스로 여성으로 동일시하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레즈비언에게 가해지는 호모포비아의 형상은 언제나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³⁹⁾

따라서, 레즈비언 운동은 당연히 여성주의 운동과 그 움직임을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레즈비언으로써 페미니스트와 동일시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다시 타자화된 대상으로 남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여성애자 페미니스트'뿐 아니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레즈비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조건들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있어 진보의 상징으로 '레즈비언'이라는 상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여성주의 진영 내에서 우리가 놓인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경험과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으며, 단지 페미니스트와의 연대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 대학교 18대 총여학생회 Her/心/탄/회 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여자라서...'라는 꼬리표를 부리며 부당한 억압들을 가래오는 사회속에서, '여자라서!' 행복한 삶을 개척하며 여성 운동을 해나가는 단위입니다.

02-760-1430/011-9873-0268

skkuwom@hanmail.net(공용메일입니다)

홈: 공사중~*

★지난 1학기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2002년 1월 기활(동두천 새운동터~*)

전여노 연대 활동

페미니즘 사상 세미나 진행

2월 여학우 새내기 새도배운동-"여자라서 즐겁다, 유쾌/상쾌/통쾌" 새터

3월 3·8여성 대회 참여
새내기 상교육 학교-"삐딱이 성 바로잡기"

4월 '당신의 BODY는 안녕하십니까?' 자료집 발행
몸칭찬 글 공모전 진행
시그네트스 노조 투쟁 연대
4/19 폐지어 달리기 참가

5월 메이데이 여활 활동

시그네트스 연대 주점

대동제 미팅 프로그램 저지 활동

여성 현실제-"커밍아웃, 나는 性人이다!"

☆학기중 새내기 세미나 팀 운영

방중-농활 분반 활동과 반성폭력 교양 진행

생리대 주머니를 만들어 배포/농활에 직접 참가

김행부 세미나/새내기 세미나 진행

★단위의 모임 형태의 장단점, 그리고 운영 방식을 설명해주세요.

39) <레즈비언 글모음집>, '레즈비언과 호모포비아', 김지혜, 1997.

총여학생회는 학생회장단, 집행부, 세미나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생회장단과 집행부는 같이 일년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며 함께 활동을 책임지죠, 세미나 팀은 보통 새내기들로 구성이 되며 여성학에 대해 배우고 총여의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죠.

우선 총여는 여성학을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주의를 학내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활동으로써 고민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운단위가 성대 내에서 '학생회'라는 틀로 존재하는 이유는 남초이고 보수적인 성대 진영에서 여학우들의 50%이상의 투표와 50%이상의 찬성률로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이 여성 운동을 하기에 그나마 좋은 조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학생회의 형태를 하고있는 총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대중을 바라보면서 활동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현재의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어떤 부분들에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한지.

현재 어느 곳이나 같은 상황이지만 여성 운동이 그다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각 단위에 있던 여운단위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학우들에게는 '이제 평등하지 않으나'여성 상위시대'등의 허위 구호가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남학우들은 '여성운동을 여성우월주의'라는 외계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가장 큰 고민은 50% 넘는 투표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학우들이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성 주의를 페미니스트들만의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할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1. 단위 소개글

올해로 31번째 『정정현』 발간을 기획하고 있는 정정현 편집실입니다. 정정현 편집위원회는 학내 언론기구로서 일년 간격으로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을 제작·발간합니다. 제반 사회현상, 가부장적 자본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공부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성주의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메일주소와 편집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아요. skkujjh@hanmail.net, 02-760-1417

2. 지난 1학기 활동 및 2학기 계획

정정현은 교지 편집실인 만큼 1년에 한번 『정정현』을 발간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맞춰 일년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기획회의와 기획세미나, 수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게시판을 통해 학우들과의 의견교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난 1학기에는 총여학생회와 함께 여학우 새로 배움터, 여성현실제를 공동기획하였습니다. 2학기 계획은 학기말 즈음하여 31호가 발간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에 이어 회의와 세미나를 계속 하며 글들을 완성시키고 기획사 작업을 시작하여야겠지요. 그 외에 총여와 함께 주최하는 외부활동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3. 단위 모임 형태의 장단점, 운영방식

현재 정정현 편집위는 교지 편집위원회로서 공식적인 학교 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활동비, 교지 제작비, 공간)을 받고 있습니다. 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생긴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학교의 지원을 받다보니, 책 기획 시 고려해야 할 독자층이 '성대 전 학우'로 고정되

어 있다는 점이 때로 기획의 예외사항으로 작용합니다. 성대 전 학우의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꽤 낮은 상황이므로, 책 전체를 기획함에 있어 글의 수위를 항상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편집방향에 대한 학교의 간섭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또, 발간 주기가 일년이므로 그때그때 터지는 작은 사건들을 담아내는 데에는 민첩할 수가 없어, 다루는 내용이 시의성을 띄기는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년의 모든 일정이 교지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지 발간이외의 다른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 참여하는 데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4. 학내 여성운동 단위의 포지션, 성과와 힘든 점

성균관대 내에 현재 남아 있는 여운단위는 총여학생회와 정정현 편집위원회입니다. 그 외 단대 여학생회나 소모임 등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내 전반적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감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정정현』의 인지도는 그것이 '교지'임을 감안할 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정정현 편집위가 학내 언론 기구 중 하나임에도 학내 타 언론 기관들과의 연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은 아무래도 활동 시 편리한 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내 전반적인 관심저하, 그리고 남아 있는 여운단위의 수적 열세 때문에 시의성을 띄는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입장표명이 강하게 공유되거나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활동 시 어려운 점입니다. 이 와중의 성과는 『정정현』이 폐간되지 않고 매년 책을 발간함으로써 그 것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주의의 목소리를 공명시키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10번째 여학생위원회는요 고대안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이것이 고대안에 흘러넘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반성폭력국과 여성노동국, 여성문화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여성학도서관 친리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암여성주의자연대회의와 교수성폭력투리틀기연대회의, 땀들굴리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여위에 대한 자세한 예기는 아래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지요. 여위 메일 주소: kufemi@korea.com 여위주소: 성북구 안암5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2층 여학생위원회실 여위 전화: 3290-1844 여위 커뮤니티: 언니네 안의 고려대여학생위원회

★주제국을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반성폭력국

2월:

새터지킴이 사업- 새터에서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와 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과반별로 지킴이를 세우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새터기간내에 점검을 하지요. 여학우방을 관리하기도 하구요. 이밖에도 새내기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다.

3월:

교수성폭력투리틀기연대회의 기자회견-교수성폭력의 특수성, 사건해결에 있어서 난점들, 성폭력 담론 분석과 학칙의 문제점들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참가하였구요. 거리시위나 문화제를 함께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시행세칙 발의-사건의 실제적 해결을 원활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시행세칙 안 제출(조사시 피해자 권리 보호와 조속한 사건처리, 조사위원회 설치 등 권고)→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는 얻었으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다음으로 연기되었지요.

4월:

열음마당-"여전히 문제는 성폭력이다"라는 제목 아래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문제를 알리고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 성폭력에 대한 개념잡기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원칙, 성폭력 담론의 유형분석과 비판, 교수성폭력의 문제, 학칙·상담소 소개와 한계점을 설명하였고 정정현 선생님을 섭외하여 호신술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성폭력 강연회-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강연회에 원총, 상담소와 함께 준비, 대학원의 특수성과 교수성폭력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강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담보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문제에서 피해자유발론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지요.

5월:

교수성폭력투리틀기연대회의 공동서명운동: 진행중인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교수성폭력문제 의 특수성과 피해자유호에 대한 비판 자보전을 하였습니다.

이대 대동제: 이대 대동제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과 의식화를 위한 자보 게시하였습니다. 성폭력 개념의 확장(성차에 기반한 폭력)을 담론화하였는데 총학과의 연대과정에서 총학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연대를 파기하고 총학에 사과문을 요청하는 등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학우들이 온라인상에서 꽤나 강한 반발을 하였지만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반성대회 문화제: 가부장제의 가장 폭력적인 산물인 성매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정교히 표명하고, 성산업에서 억압당하는 여성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화하였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편견깨기 사다리타기와 성매매방지특별법서명운동을 가관에 서 진행하였구요 영화 'Shocking truth'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상영회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6월:

구성에 강연 비판 자료- 상담소 주최 구성에 성폭력에방강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닌 순결이태올로기에 근거한 성폭력 접근에 대해 비판하고 피해자유발본에 대한 비판없이 대응법을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7월 & 8월:

현재 교성부원차원의 토론회와 중간백서 사업 공동진행중입니다.

여성노동국

3월:

3.8 세계여성의날- 전여노조와의 연대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완전적용, 여대생 취업문제를 기조로 교양학교를 진행하였구요 여성노동운동을 보여주는 사진전을 하였습니다.

5월:

메이데이- 2002 메이데이 여/생들을 함께 하였고 학내에서는 학내의 여러 여운단위들과 '여성노동주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위 차원에서 여성노동워크샵과 학내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벽간치를 하였구요, 함께 '밥·꽃·양'을 상영하고 새울터후원주점을 하였습니다.

7월, 8월:

현재는 뱃돌굴리기와 함께 여성노동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제 7회 여성해방제: 여대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희망주기와 20대 여성의 독립과 자립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여성문화국

2월:

여성주의세터- 고대의 남성중심적 집단주의적 문화를 내면화하게 되는 세터에 대한 비판으로 여·새를 기획하였습니다. 연애를 주제로 하여 데이트 성폭력이나 피임 등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주체적이고 평등한 관계맺기, 대안적 세터문화모색 등의 내용으로 채웠던지요.

3월:

KUBS비판 자료- 고대문화 주입의 정점인 KUBS의 영상물에 대한 비판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타단위의 지지자들과 KUBS의 입장자료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결국 사과대자보를 쓰게 했다는(음썬웃)

7월 & 8월:

안티연고제- 제1회 안티연고제를 이어 올해에는 고대의 타단위들과 연대하여 좀더 큰 판으로 제2회 안티연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대문화의 남성중심성, 집단성에 대한 비판과 학벌주의, 교육의 상업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구요 여러 가지 대안적 시도들을 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6월 & 7월 & 8월

21기 여성문제연구회- 10년을 넘어선 여성학 세미나입니다. 기초반/심화반으로 나누어져있고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의 신청을 받아 반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각각 5반/1반을 배출했습니다.

★ 고대의 경우는 현재 10대 여학생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총여에서 여위로의 전환에는 많은 고민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89년 6대 총여에서는 총여라는 독자적 조직보다 기존 학생회 체계속에서 여학생운동이 보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해소를 결정하게 되었으나 이후의 형태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계획없이 결정했던 일이라 이후의 고대에서 여성운동은 오히려 한발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지요. 92년 안암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학내의 여성운동을 고민하던 선배들이 모여 여위를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조건은 열악하였고 고민 역시 6대 총여의 문제 의식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총학과와 같은속에서 3대 여위에서 맥이 끊기고 맙니다. 그러다가 여성문제연구회라는 세미나를 통해 독자적 여성운동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한 여위권준위

가 구성되어 4대 여위가 다시 새워진 이후로는 현재 1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위의 역사를 보면 총학과와 같은속에서 여위의 존립(예산이나 공간)마저 영향을 미치는 악조건에 놓여있었으나 이제는 학내에서 여위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위원회라는 형태의 장점을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존재가능하게 되는 총여보다 전대의 고민을 이어받음으로써 운동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좀더 발전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과 여성운동의 특성상 학우대중의 눈을 보다 덜 의식하면서(??) 하고 싶은 운동, 급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만.)

여위는 그 활동범위나 위상으로 인해 고대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운동의 대표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절차적 동의를 통한 것이 아니고 특히 여운단위의 세력화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에 6대 여위의 발의로 이루어진 안암여성주의자연대회의와 같은 학내 여러 여성운동단위의 연대체를 건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안연연에서 여위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위가 학생회와 같이 과/반 자치모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학우들과 봉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학우들에게 접근방식에 대한 다양하고 섬세한 고민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위라는 조직의 형태자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학생회단위와 연대하는 사업을 여럿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터사업이나 현장활동자치대규, 학칙준비위원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과정에서 학생회가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서로를 동등한 연대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일이라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위에게 기대거나 혹은 아예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인해 학우들과 만나는 통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8대 여위의 '천리향'이라는 여성학도서관, 9대 여위의 '메일mail', 그리고 10대가 진행중인 '홈페이지'등의 방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였으나 여전히 여위일방적이고 학우들과 퍼드백이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점중의 하나는 조직화의 문제인데, 여위의 인자재생산의 통로는 매방학마다 실시하는 여성문제연구회나 여성해방제의 실천단 모집등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기적인 것이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의지를 북돋워줄지가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10대 여위에서는 여위 하부의 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고대여위는 예로부터 소수의 인자들이 고향을 짊어지면서 운동하는 방식으로 버텼는데요. --;; 이제는 확실히 이러한 운동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져온 여위인들은 이 체계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쉽게 어떻게 전환해야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고민은 이정도로 하구요...(물론 더 많지만 공개불가능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고대에서 여위는 어느 정도 여성운동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학내 타여운단위들 중 탄탄하게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단위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많은 부분 여위가 끌고가야 한다는 생각을 낳게 합니다. 특히 올해에 들어 그나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던 자치단위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힘들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고대에서 여성주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부문운동으로써 인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열세이고 소수인 상황에서 이러한 자치단위들의 약화는 안암내 여성운동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자치단위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펼쳐내지 못하고 이는 또 인자재생산의 실패를 야기하며 이것이 다시 운동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 인식적 차원에서) 페미니즘은 커지고 있으나 (이의 주체인) 페미니스트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중앙대 안성캠퍼스 스크래치 총여학생회/성별 무너뜨리기

★단위 소개글

· 성별 무너뜨리기-2001년 1학기에 중앙대 안성캠퍼스 제2대학의 페미니즘 세미나팀이 6회분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외화할 수 있는 페미니즘 문화제 한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별 무너뜨리기'는 제2대학

의 페미니즘 세미나팀이 아니라 독자적인 페미니즘 학회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이후 기지촌 활동, 성정치문화제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벌여내면서 이후에는 2002 스크래치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총여학생회 건설 운동까지 만
들게 되어 올 한 해는 스크래치 총여학생회와 함께 선택용 반성폭력 영상물 제작, 궁성민 성폭력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3.8 세계여성의날 문화제 기획 참여 등 다양한 여성주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유다 016-799-2753/ 관도라 016-463-8778

다음카페 성벽 무너뜨리기 <http://cafe.daum.net/Feminism>

· 스크래치 총여학생회-전북의 상상력, 금지의 선을 지우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1년 겨울, 여학생들만의 학생회에 머물렀던 캠프 총여학생회 공간을 여학생들만을 위한 여성주의적 총여학생회로 확대 건설하는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반성폭
력 운동, 성매매 근절 운동, 동성애자 인권운동,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성캠퍼스에서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선 언어와 낯선 일상, 낯선 관계가 아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학생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
습니다. 1월에 신고된 궁성민 성폭력 사건 해결이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안 처음의 다짐들이 많이 포기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3.8 세계여성의 날 문화제 기획, 반성폭력 문화제 기획, 기지촌 활동참가, 여성해방연대와 함께
하는 여성주의 희망 참가, 성폭력실무주체교양학교 참가 등의 활동들에 참여하는 등 여성주의 실천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탕 011-9589-7437

김행부 커뮤니티: www.freechal.com/cauchw 홈페이지: post.cau.ac.kr/~cauchw

★·성벽 무너뜨리기-우선 학생회처럼 모임의 형태나 운영방식이 고정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학회원들이 모
두 함께 동의하는 형태로 구성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점은 큰 단점이 되기도 한다. 각 구성원 개인의 편의를 너무
존중하다보니 세미나 약속이나 활동계획이 안정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세미나가 특정 원칙이나 진행방식이 없
어 영위되다보니 실패할 수도 멀다보면 하나도 정리가 안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총회나 세미나 모두 무슨 계모임처럼 변질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스크래치 총여학생회-‘여성주의’라는 것은 어쩌면 예초부터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한 사회 안에서는 도무지 다수파적 정
치, 이른바 ‘대중정치’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절망감을 남김정도로 캠퍼스에서 활동 공간, 활동 인자가 불안정한
성벽 무너뜨리기를 제외하고는 여성주의 공동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총여학생회는 일종의 ‘소수 여성주의자들의 섬’이 되고
말았다. 이 속에서 우리들이 기획한 ‘여학생들을 위한 대중사업’은 때로는 전에 없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학
생회라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꼭 그만큼의 거리감, 총여학생회의 여성주의자 활동가와 ‘비여성주의자(?) 여학
우’ 간의 거리감을 새롭게 형성하여 결코 대중적인 것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총여학생회에 있어서 학생회와 ‘학우
대중’으로 불리우는 학생들의 거리감은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주의를 위협하는 하나의 구조적인 가부장제 전략 때문
이기도 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안성캠퍼스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속해 있다. 하지만 안성은 교통통계상으로도 수도권일 뿐 사회, 문화적으로 수
도권이 아닌 ‘지역’ 즉 소위 ‘지방대학’으로 분류되는 공간에 위치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메이저 캠퍼스’로 불리는 공간에서 활
발하게 진행되는 담론과 실천들에 대한 일방적인 부러움 혹은 거부감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여성주의’는 메
이저캠퍼스든 지방캠퍼스든 언제나 힘겨운 자매들 몇몇의 노력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
는 억압과 소외를 자신의 활동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 문화적 조건은 메이저캠퍼스와 지방캠퍼스 각각의 대학인에게 완
전히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저캠퍼스에 비해 너무 많은 여성주의적 실천과 담론이 필요한 공간에서 빈약하고, 불안
정한 관계만으로(한마디로 ‘외지’만으로)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지방캠퍼스의 여성주의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활동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일단 아무도 여성주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 역시 다양한 활동(세미나, 문화제)으로 이어가는 것 자체
를 부정하는 학내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며 다수의 비권 학생회 및 소수의 구대의연한 운동
권 학생회가 가지는 강고한 가부장적으로 인해 활동공간과 예산은 그들의 독점이 되어 활동에 필요한 제반조건 역시 여성운
동을 하는 주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 또 캠퍼스에서의 상황에 너무 몰입하다보면 다양한 여성주의 정세의 발맞춘 고민과 담
론형성, 실천의 장에 소외하게 되고 여성주의자들은 점점 ‘지긋지긋한, 하지만 졸업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자조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우리들의 공간에 갇히게 된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이들 스스로의 몫이지 그 누구의 몫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처럼 학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동조세력이 갑자기 형성되는 이번이 발생할 경
우 정말 끔찍한 상황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 --)

외대 여학생위원회

홈페이지: www.bigschool.co.kr/한국외대여학생위원회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관 2층 여학생위원회

전화번호: 02)961-4450

안녕하세요? 외대 여학생위원회입니다.

외대 여학생위원회는 올해로 15년째 외대내의 여성운동의 다양한 실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학생위원회는 막강 파
워 4명의 여인네들이 모여, 시끌벅적, 똑딱똑딱, 정신없이 수다를 떨면서 많은 일을 척척해나가고 있어요. ‘여학생들이 있는
곳이면 여위도 간다’는 정신으로 한 학기를 버텨왔는데...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회의도 많이 들었죠.

지난 한 학기를 시작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선택... 경악할 법한 업무량에 모두들 지쳐나가 어지거 적전이었죠... 성폭력 예방
비디오도 만들고, 과반주체 50여명을 교육하고 반성폭력 모니터링을 진행했어요. 개강 때 맞춰서 새내기사업으로 성폭력 대
자보 거리전도 하고... MayDay를 맞아 여성 행동위에 결합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과도한 업무로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지만
요. 대동제때는 퍼임 워크샵과 여학생휴게실 하루카페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봄, 여름 농활... 제일 많이 했던 건 자갈한 선전
업무... 아무래도 사람은 적고, 알릴 것은 많다보니...

여위에서 따로 세미나를 진행하지는 않았구요, 1학기 동안 ‘아르테미스’라는 여성세미나 팀에 모두들 참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 학회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만든 세미나 팀인데, 인원도 많고 다들 열심히 해서...
2학기 때는 여성 문화제를 거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가정으로 ‘넋넋 년들 지랄하네’라는 기초를 잡았는데... 마니모양 조형물
도 전시하고, 예쁜 소품들도 만들어 팔고, 돈이 된다면 지현씨도 부르고 싶고... 여학생들이 정말 막힘 없이 달려볼 수 있는
재미난 문화제를 만들려고요.

여학생위원회라는 모임은 참 예뻐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학교의 총여학생회처럼 직선을 통해 선출되지 않고
그야말로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형태거든요. 모임의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제일 큰 문제는 총학생회산하 특별기구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산도 너무 적고,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참관자격밖에 없어요. 2학기때는 여학생위원회의 다른 형태를 고민
해보려고 해요. 좋은 참이라면 이전에 여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무리없이 사업 이월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여학생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대내에서 여학생위원회를 지원하는 다른 모임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는 듯... 가끔
한탄 섞인 목소리로 ‘우리말고 동아리든 학회는 딱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외대내에서 여학생위원회의 위치라...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외대생중에 여학생위원회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학우들이 많았어
요. 올해 선택때부터 여기저기 간섭(?)하고 다니고, 자료집이나 영상물이다 시끄럽게 했더니, 이젠 학우들이 곧잘 ‘여학생위
원회에 이틀거야’ 뭐 이런 농담도 한다고 하네요. 외대가 여학생들은 많은데, 여성리더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의외로 보수적
인 사람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여학생위원회가 대자보 붙이고 다음날 보면, 가운데 장을 뜯어 놓는단인지, 사이트에 의견을
제기하면 바이러스성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고... 정말 일 받아요. 특히 대자보 가운데 장 뜯어놓는 건 최악이
예요. 아니면 한가운데 발자국 딱 찍어놓고가고... 반중에 여위실 문을 막 두들기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번은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데 ‘@#%&*’ (욕)하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꼭 여위에 물어보는 시럽지 않은 질문 ‘왜 남학생위원회는
없나요?’, ‘왜 남학생휴게실은 없나요?’...(필요하면 만들면 될 거 아니냐? --) 하지만 여학생위원회의 존재가 그만큼 알려졌
다는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려면, 이런 얘기 해도되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여위인들도 너무 적고... 학내에서 여성운동하는 친구들을 발굴하는게 제일 문제죠.

힘빠지는 것은...뜨거운 감자...여학생휴게실이요. 청소를 여위가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예티켓 적어두고, 힘박도 해보고... 안 통하네요. -- 쓰레기만 쓰레기통에 넣어도 할 일이 반으로 줄어들텐데...
그리고 여위 가지고 말장난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여위에 이틀거야’, ‘넌 뻔’아, 뻔-문화도 사실 처음엔 성폭력적인 상황
이 발생했을 때 부담갖지 않고 경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사실, 흥대에서 했다는 소문을 듣고)거든요. 결국엔 누가 약간이라
도 오버하면 바로 뻔-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힘든 거 따지자면 밤새 얘기해도 다 못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여위의 활동에 대해 심정적으로나마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다
는 거예요. 다른 단위 사정들도 많이 궁금하네요. --